

성경은 교회를 해방하기 위한 사신 고해이며, 교회가 고해되는 것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굳게 지켜 나가는데 있습니다. 오 늘 교회가 경계를 잃고 세상의 조종(제어)이 되는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씀의 집으로서의 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 역사하려면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회심을 다하여 생명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맞고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온전하게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0월 4일 (토) 제 150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교회, 더 이상 '정신질환의 사각지대' 안된다!

라이프웨이&포커스언더패밀리, 교회의 올바른 대처와 준비책 제시

목회자도 4명 중 1명 정신질환 앓아

교인들이나 그 가족이 자살을 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교회는 그 사실을 애써 입에 울리지 않는다. 일부 교회나 크리스천은 자살이나 정신질환을 영적 실패로 간주하기도 한다.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 미국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바로 크리스천들은 정신질환에 관한 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개인적인 죄나 믿음의 부족 혹은 영적인 공격 때문이라는 식으로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는 정신질환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현대를 불만의 시대라고 한다. 사람들은 그 불만의 정체를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그런 시도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투사에 불과하다. 불안의 근원은 인간의 내부 바로 우리의 심성 속에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교회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에서 정신질환과

맞닥트리고 있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신분열병, 우울증, 인격 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의 질환들이 우리 주위에 만연한데도 그 어떤 전문가 집단도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라이프웨이와 포커스언더패밀리가 공동으로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명의 목회자 중 1명 역시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1 in 4 Pastors Have Struggled with Mental Illness, Finds LifeWay and Focus on the Family: Family ministry has Life Way Research examine how well(or not well) churches address mental health).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사탄의 공격이나 책망을 통한 정신질환 공격이 평신도와 목회자를 가리지 않고 침범하고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정신질환이 늘어난다는 현상은 교회공동체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을 신앙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석 인원이 30,000명이 될 정도로 교회를 성장시켰지만, 자신이 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최근에서야 알렸다. 그 이

유는 바로 어떻게 목회자가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는가? 라는 쉽지 않은 시선과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정신질환이라는 주제는 강단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설문에서도, 66%의 목회자들이 강단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거의 아니면 한번도 정신질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25%의 목회자들만이 오늘날 상황에서 정신질환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1년에 몇 번에 걸쳐 설교했다고 응답하고 있고, 7%는 한 달에 한 번씩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좀 더 개방적으로 정신 질환을 이야기해야 하고(59%), 교회 식구들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65%) 그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대비책이나 효과적인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노하우나 인력이 부족하다. 그만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우들이 도움을 청해도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교회의 현실이다.

결국 교회공동체로서는 힘든 사역이기에, 지역사회 정신질환 센터나 관계 의료 기관들에 "리퍼럴" 형태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수의 교인들만(28%)이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번 설문에서 참여한 목회자들 중 27%만이 정신질환을 겪는 교우나 그 가족을 돕는 프로그램에 가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교인들이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였다(21%).

(3면으로 계속)

한국인 "행복도" 는 어느 정도?

갤럽&헬스웨이, '2013 세계 웰빙지수 조사

지구촌 200여 국가들 중 항상 20위권 안에 드는 한국은 이제 선진국가로 불려도 좋을 정도로 탄탄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문맹률이나 대학진학률, 인터넷 보급률 등등 세계 어떠한 나라와 맞붙어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행복지수가 낮다는 점이 항상 문제가 돼왔다. 바로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구조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즉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가 일부 계층에 쏠리면서 빈부 격차와 양극화는 심해졌다. 노동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일 정도로 고용시장은 불안정하다. 청년실업, 조퇴와 명퇴, 노인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따라서 '갤럽'과 보건컨설팅 회사 '헬스웨이'가 조사한 '2013년 세계웰빙지수'에서도 한국은 하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복지수는 낮았다.

한국 웰빙지수 135개 국가 중 75위 45세이상 절반, '번영중' 선택 안해

높은 자살률과 노년층 빈곤,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까지, 한국인들은 스스로 얼마나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최근 발표된 '세계 웰빙 지수'에서 한국은 135개 국가 가운데 75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미국 여론조사 기관 갤럽과 보건컨설팅업체 헬스웨이는 공동으로 135개국 15세 이상 남녀 13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와 면접 조사 방식으로 웰빙 지수를 매겼다. 갤럽과 헬스웨이는 웰빙 지수를 5개 카테고리(삶의 목표, 인간관계, 재무 상황, 공동체, 신체적 건강)로 나눠 측정했다.

응답자들에게 5개 카테고리에 대해 '번영 중(thriving)'과 '고전 중(struggling)', '고통 받는 중(suffering)'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했다. 갤럽과 헬스웨이는 5개 카테고리 중에 적어도 3개 카테고리에서 '번영 중'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을 기준으로 국가 순위를 매겼다.

(3면으로 계속)



2면

현대인의 고질병, 자존감 세우기!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신앙의 본질회복을 통한... 전담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16면

인터뷰 지니정 변호사



주님의 초청에 함께 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세상의 어부는 산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오늘도 전도지를 가방에 챙기고 길을 나섭니다. (뉴욕장로교회 김옥희 권사) ”

“ CWM 전도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 전도지가 없었다면 어떡할 뻔 했을까? 전도훈련을 통해 지금도 늘 전도현장에 있는 분들 중에 얘기 (조화자 권사, 김옥희 성도) ”

2014년 LA 동부지역

제 54기 C.W.M. 전도훈련

주 강사 :



조복섭 사모



이은희 목사

일시 : 10월 20(월), 21(화), 22(수) 저녁 7:20 ~ 9:40

장소 : 글로벌 선교 교회 (909-396-4441)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대상 : 교역자, 사모, 신학생, 평신도 모든 분

수강료 : 50불(교재, 전도지, 기타 자료 포함)

4명 단체 등록 수강료 50% 할인

연락처 : 562-480-6975, 714-371-6406, 310-749-7522,

boksupcho@gmail.com

주최 : C.W.M.(Christ Witness Mission)

후원 : 글로벌 선교 교회

C.W.M.은?



시론

중단 없는 개혁



최창섭 목사
(에베셀 선교교회)

한동안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진 단어 중의 하나는 “개혁”이었다. 재벌개혁, 국방개혁, 정치개혁, 교육개혁, 규제개혁, 사법제도 개혁, 공무원 연금개혁, 공기업 개혁, 정보원 개혁, 체육개혁 등. 얼마나 개혁이 되어가고 있는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바꾸어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개혁이란,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란 뜻이다. 금번 10월 31일은 종교개혁 497년을 기념하는 날로 Martin Luther가 1517년 로마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95개 조항의 질

의서를 독일 뉘른베르크 정문 게시판에 붙인 것이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특히 마리아 숭배사상, 성직매매, 성당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면죄부 판매 등은 순수한 복음에서 변질된 것이며, 선량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교황청의 기만이라며 부패한 교회를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새롭게 변혁시키자 했던 운동이다.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은 첫째,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다. 당시에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성직자들만 가질 수 있었고 읽고 해석할 수 있었다. 또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기에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더더욱 읽을 수 없었다.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일반 국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둘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율법을 지키므로라, 선행으로, 종교적 의식을 행함으로써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셋째, “오직 은혜”로, 구원은 자신의 어떤 공로나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믿음은 구원의 은총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할뿐이며 행위의 ‘대가’로 구원을 받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당시의 종교개혁은 독일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자연과학, 의학 등 각 분야에 큰 변혁을 일으켰다.

1517년 루터를 통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이 일어난지 497년이 되었다.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교회의 참 모습,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참 모습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과거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말씀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일, 겸손하고 정직한 삶보다는 성공주의에 집착하게 되었고, 도덕적 수준은 현저히 낮아져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 전체 인구가 1,200만명이었을 때 기독교인의 수는 약 10,000명 정도로 1%대였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신뢰받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의 수는 훨씬 더 많아졌지만 영향력도 낮아졌고, 신뢰도도 타종교에 뒤져 있다. 지난 2월 한국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타종교와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천주교 29.2%, 불교 28%, 기독교 21.3로 최하위였다.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언행의 불일치, 불투명한 교회재정,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꼽았다. 오늘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제 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무속과 신비주의에 몰두어가는 기독교, 타종교와의 연합을 빌미로 종교다원주의를 공공연하게 정당화하는 일, 관신주의와 은사주의, 목회자들의 성추행 등.

2년전 한국 미래목회포럼은 “종교개혁 495주년을 맞는 한국교회 5대 개혁제”를 발표했다. 무자격 목사안수 남발, 대형교회 세습 문제, 교단총회의 총회장 선거의 비윤리적 행태, 연합기관의 빛나간 이단논쟁으로 교계를 분열시키는 일, 두 개의 찬송가 발행, 교계 인사들이 정치인들의 들러리로 나서는 일 등. 한국 미래목회포럼은 지난해 ‘오늘의 교회개혁과 사회변혁’을 주제로 종교개혁 496주년 기념 포럼을 열었는데, 고신대 이상규 교수는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공동체에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종교개혁을 16세기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반성적 성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한국교회의 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순수성과 거룩성, 영성과 윤리성을 회복하여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횡보를 높이 드는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한다.

현대인의 고질병, 자존감 세우기!

기독교상담가, 경쟁사회 속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 10가지 소개

자신감(자존감)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시간이 없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를 당하는 삶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챙길 여유란 없어 보인다. 열정, 몸짱에 이어 동안 열풍이 부는 사회에서 항상 우리는 열등의식을 느낀다. 입시 준비, 취업 준비 등의 험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남보다 못하다’는 자괴감 속에 빠지기 쉽다. 늘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상 부정적인 말과 세상 살기 싫다는 말을 달고

산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랑은 습관이다 베풀고 베풀다 보면 사랑은 물 흐르듯 흘러간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데서 시작된다. 열등감은 만병의 근원이다.

크리스천들은 자기 자신을 절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하는 무가치한 죄인으로 보아야 하는가? 자존감은 오늘날 기독교계에 중대한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성경적 통찰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크리스천의 자존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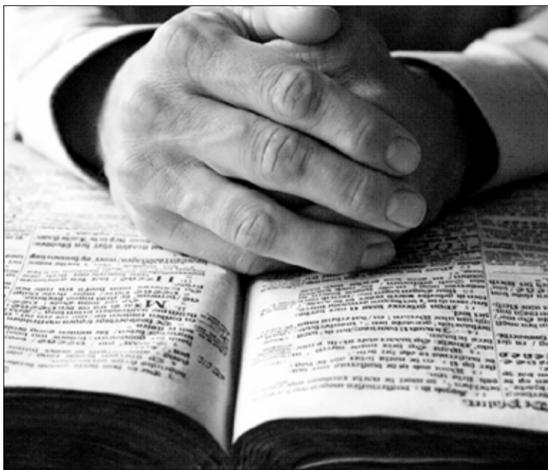
인이나 친구들을 돕거나, 가까운 기관을 통해 작은 봉사활동이라도 시작해보라.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듣게 된다면 쓸모없게 느껴졌던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될 것이다.

5. 부정적인 친구는 멀리하라

역경 속에서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은 누구나 많이 접하는 말이다. 이 명언처럼 친구라고 해서 다 같은 친구가 아니다. 나를 이용 대상이나 스트레스 풀기 대상으로 생각하며 은근히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런 친구의 마음에는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우월심리와 한편으로는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다.

나를 존중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친구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친구들은 스스로 자존감이 높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힘도 나고 나 자신이 존중받는 기분도 든다.

6. 긍정적인 암시를 하라



자기사랑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피조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 형상의 열매 맺는 자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용납하여야 한다. 나의 존재를 긍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기회를 은혜로 알고 수용해야 한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알지 못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 된 ‘나’ 긍정적, 성취적, 용서, 도움주기...부정적 욕심은 버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한 구원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긍정적 자존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자존감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재산이다.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하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평범한' 하루의 시작을 감사하라

매일 똑같이 시작하는 하루에 지루함과 관태감, 무력감 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루를 아무 말 없이 시작하는 것도 축복이다. 누군가는 그 하루를 더 살지 못하고 죽었거나, 부상이나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별일 없이 평범한 하루의 시작을 감사히 여긴다면 그 하루를 대하는 당신의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2.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

자존감은 어려서부터 타인의 반응, 나에 대한 평가들로 형성된다.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어 상처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무의식중에 그것이 남아 ‘나는 잘하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들었던 말은 말일 뿐 상대가 평가한 건 전제 내가 아니다. 일부만 보고 나를 마음대로 평가한 사람들을 당신이 먼저 용서해보자. 마음을 비우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향상될 것이다.

3. 진정한 친구와 차 한잔 마셔라

플라톤은 ‘친구는 모든 것을 나

눈다고 했다. 심리적 안정에 효과가 있는 차를 마시며 자신의 고민을 친구와 나누어 보자.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해 무거워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4. 먼저 남을 돕는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나는 뭘 해도 안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변 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잘하지 않는다. 우울한 생각을 하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 ‘난 할 수 있어’, ‘난 최고야’, ‘나는 하는 일마다 잘된다’는 생각을 지속해서 입으로 되뇌어라. 또는 성경 말씀, 긍정적인 격언 등을 책이나 컴퓨터 등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써서 붙여놓자.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 (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10월 31일까지 입학하시면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신앙으로 승리하라!

라이프웨이&포커스언더패밀리, 교회의 올바른 대처와 준비책 제시

(1면에서 계속)

다행스러운 점은 어느 교회들에서(14%)는 정신질환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도 있다는 점이었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듯이, 목회자들 역시 74% 정도는 즉각적으로 정신질환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나 갈등에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정신질환이라는 의학적 영역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리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앓는 교우에게 기도와 상담으로까지만 한정되고, 질환이 심해지면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앓는 평신도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의 병을 말하지 않게 된다.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피해의식이 이



제는 나누는 것조차도 회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200명 피설문자들 중 10%는 자신의 질환을 교회에 이야기했다가,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 안 좋아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13%는 아예 교회출석을 포기하고 다른 교회를 찾는 것조차도 거부

하고 있다. 결론으로, 최근에 이르러 교회에서도 정신질환자를 돕고 병의 악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이 문제가 성경공부나 기도 등 영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여긴 채 전문적인

치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여기에 정신 질환이라는 아픔과 고난을 겪는데 목회자나 아니냐에 따라 교회와 세상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또한 목회자가 유명인이나 아니냐, 일반 목회자나 특수 목회자냐와 상관없이 목회자와 그 가정이 겪는 그들만의 독특한 아픔이 있고, 치유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포커스언더패밀리’의 심리학자, 핑레톤(J. Pingleton)은 성경이 바로 정신 질환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교과서라고 말한다. 성경에는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들, 극심한 좌절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극단에서 극단으로 성격이 오고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 받았는지가 자세하게 나온다. 다윗은 전형적인 조울증 환자였고, 엘리야는 좌절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다윗이나 엘리야는 그들의 겪었던 병으로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다. 바로 다윗과 엘리야라는 이름은 그러한 질병과 나약한 의지를 신앙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기억된다!

소망 칼럼

간절한 기도의 응답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신자들의 간절한 기도는 속히 응답을 받는다. 우리는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다. 우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것이 큰 은혜이며,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서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이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담담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면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에서 건짐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받은 것이 소중한 은혜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할 대상조차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마음을 털어놓고 속사정을 말씀드리고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이다. 더구나 우리들은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언제나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구할 수 있다. 이는 놀라운 특권이요 은혜이다.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를 잡아 죽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제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베드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철야하며 기도를 하였다. 성경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하더라”고 하였다. 모두 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무사히 풀려나게 해주셨다(행12:7). 밤중에 옥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여 밤새도록 기도한 마가의 집으로 갔다. 베드로가 집 밖에서 대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나왔다가 밖에 온 사람이 베드로인 줄 알고 그만 집안으로 달려 들어가 제자들에게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알렸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네가 미쳤나”고 야단을 쳤다(행12:15).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여기에 올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 아이가 더 큰 소리로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베드로를 구하여 주소서, 꼭 도와 주시옵소서”하고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응답된 사실은 만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는 했지만 기도의 결과를 놓고는 우연히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이 기도의 결과인 줄은 모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기도가 없으면 우연도 없다고 했다. 일본이 자랑하는 종교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다. 이 분이 나라 전체가 기울어서 큰 재난을 받고 있을 때 온 가족을 모아놓고 기도를 가졌다. “이 땅에 비를 주십시오, 나라 전체가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아이가 학교를 가면서 “우산을 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비를 내면서 “미쳤나 청천하늘에서 무슨 비가 오게”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 “아니 방금 비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를 줄 믿어야 한다. 약 5:13-18에 보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기도가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가능케 만든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로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였으며 다시 기도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온 땅에 단비가 내리게 하였다(왕상17:1,18:1).

한국인 “행복도” 는 어느 정도?

(1면에서 계속)

3개 카테고리에 대해 ‘변영 중’이라고 답한 한국인은 전체의 14%였다. 한국은 하위권에 속했다.

‘삶의 목표’ 카테고리에서 ‘고전 중’ 또는 ‘고통 받는 중’이라고 답한 한국인은 85%가 넘었다. 보고서는 노력이 보상 받지 못하는 승진 및 급여 체계가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와 기업의 문화는 위계질서가 엄격하다는 비판을

중중 받는다.

한편 신체적 건강 카테고리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답한 한국인은 65%였다. 신체적 건강 카테고리에서 ‘변영 중’이라고 느끼는 한국인은 고작 17%로, 전 세계 평균인 24%보다 낮았다.

한국은 재정 상황 카테고리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37%가 ‘변영 중’이라고 답했다. 세계 평균인 25%보다 높았다. 그러나

45세 이상 한국인(28%)은 45세 미만 한국인(43%)에 비해 체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5세 이상 한국인의 절반가량은 어느 카테고리에서도 ‘변영 중’을 택하지 않았다.

갤럽-웰스웨이스 보고서는 한국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에는 웰빙 바람이 불었다. 서구 문화의 영향으로 건강에 해로운 패스트푸드와 정신없이 바쁜 라이프스타일이 자리 잡은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

최근에는 등산과 캠핑 등 야외 레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또한 건강식품과 유기농 식품 매출도 늘었다.

한국은 대다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웰빙 지수가 낮았다. 말레이시아는 36위, 대만은 55위, 일본은 64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한국보다 낮은 90위에 올랐다. 1위의 영광은 파나마에 돌아갔다.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설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대인의 고질병, 자존감 세우기

(2면에서 계속)

우리의 뇌는 현실과 이상을 구별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속해서 써놓은 구절을 본다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변해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7. 성취감 느껴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만큼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이라도 시작하라. 등산이나, 달리기 등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도 좋고 조금씩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라고 우디 알렌은 말했다. 시작이 반이라는 뜻이다. 아주 작고

남들 눈에 안 띄는 것이라도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시작해보라.

8.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가 늘 거절할 줄 모른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남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잘 피력하지 못하는 것. 아마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부탁하는 지인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릴 필요는 없다.

9. 스스로 내린 선택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자신의 가치와 나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강한 자신을 만드는 일이다. 나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앞으로 닥쳐올 경험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탈해진다.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우고 당신이 내린 결정을 신뢰하며 앞으로 다가올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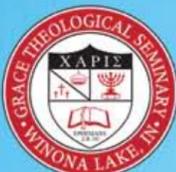
10. 욕심을 버려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쓸데없는 자존심만 높이는 경우가 있다. 마음의 욕심이 많으면 그만큼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된다. 집착증, 강박증, 완벽주의 등의 불안한 심리적 반응을 보이기 된다. 이때부터 삶이 조금씩 버거워지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 결국 부정적인 사건을 겪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집착했는지 느껴야 한다.

결론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어디 10가지만 있겠는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변수들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자존감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죽도록 사랑하신 나, 지극한 예수사랑의 대상인 자기의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공허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대상인 나 자신을 그 누구도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취급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우고 가꾸며 책임 있게 사랑해야 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모여야 교회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결혼 생활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시대는 아들 딸 손

자 며느리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살던 대가족 시대에서 분가가 사회의 중요 이슈로 등장했던 핵가족 시대로, 다시 자녀들까지 흩어지고 부부만 오롯이 남는 전자가족 시대로, 다시 결혼을 포기하거나 헤어져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1인 가족시대로 변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등장하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고독입니다. 집은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에 들어가면 되고 음식은 외식을 하거나 끓이기만 하면 되는 즉석요리들이 마켓마다 넘치므로 사다가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고독입니다. 단절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외로움은 그 무엇도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평생 안고 가야 할 절망이요, 고통입니다. 숨 막히는 고독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삼키며 살아갑니다. 고독의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길으로는 웃어도 속은 쓴 웃음과 자기비하와 슬픔에 젖어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없이 돈, 게임, 술, 포르노, 파괴적인 가상세계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현실을 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온갖 중독이 늘어갑니다. 그럴수록 현실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갑니다. 해진 후 어둠이 시시각각 몰려오듯 우울증이 사회 전역에 퍼져가고, 이혼, 폭력, 자살, 성격 파탄이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독의 해결책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해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 함께 사는 길뿐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경제, 사회, 정치 단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단체는 둘, 곧 가정(창1:27, 2:24)과 교회뿐입니다(마16:18, 18:20, 행1:12-2:4). 그리고 이 두 단체의 공통점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혼자 결혼할 수 없듯이, 교회는 함께 모여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이 남편 직장, 자녀 학업 등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도 힘써 모이지 않으면서 점점 침체되어가고 있습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모여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모여야 황폐해져가는 세상, 고독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입니다. 그냥 모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모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푸 / 른 / 초 / 장

강기봉 목사
(백민교회)



얼마 전 새 차로 바꾸었습니다. 딜러가 열쇠를 건네주면서 '모든 파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 잘 달릴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했습니다. 딜러 인사치고는 특이해서 기억이 납니다.

우리말에 '주제 파악을 해라, 생긴 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격려의 말이야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삶은 물론 옆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요즘은 이 주제 파악이 잘 안된 분들이 참 많기에 해 보입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 대 혼란이 일어나는 듯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제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인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성도로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 아빠를 닮고 엄마 아빠를 보며 배우고 따라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그 분을 따라 삽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을 알고 누리며, 날마다 경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말하라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는 벤전 2:6-8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에서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과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알아야 할 차례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닮아 그 길 따라 삽니다. 이것이 마땅한 본분이요 도리요 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 구별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임과 같이 성도란 따로 분리되어 세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처녀가 결혼하면 남편 위주로 모든 것이 모아지듯이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야함을 말하면, 우리 한국분들은 마음들이 어려서인지, 슬프고 담배끓고 이런 저런 취미생활도 자제해야 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에 활기도 사라져 가고 능력도 쇠퇴합니다. 결국 오래지 않아 '이것 신앙생활도 좋지 않 재미가 없어 살기가 힘들다'고 실토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성도가 절제해야 할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하지 않던 일을 시작하고 더 집중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구별된 성도'를 성경대로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롬 12:1-2 말씀이나, 벤전1:15-16 말씀을 보십시오. 구별된 성도는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피해 움츠러들기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빛되게 살아갑니다. 목욕을 버리려다 아기가 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내기 엄마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그 물을 버린다는 것이 그만 아기가 까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물들면 안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멀리하고 피한다는 것이 성도

로서 세상을 향해 가진 사명까지 피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천지의 주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일군입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전부장으로 우뚝 서서, 진정 구별된 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 중보자의 생활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밝혀줍니다. 택하신 족속이라 했는데, 이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또 빛으로 능력의 영향력을 미치며 통치해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뿌리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시키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측면들은 성도가 그렇게 맞추어 살 때 가능해집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말은 바 기능을 발휘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려 애쓰고 힘쓰므로,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갖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모하고 따라 사는 동안 자신이 성화되어 갑니다. 하루에 세 번 씩은 거울을 보아야 사람들 사이에서 실례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성도가 하루 적어도 세 번 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그 삶을 통해 이웃을 복음으로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고 이기심에 요동치는데, 저 쪽 한 사람은 조용하고 평안하다면 당연히 주목을 받을 것이

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나눔을 본받아 살려 애쓰고 힘쓰므로,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갖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모하고 따라 사는 동안 자신이 성화되어 갑니다. 하루에 세 번 씩은 거울을 보아야 사람들 사이에서 실례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성도가 하루 적어도 세 번 씩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그 삶을 통해 이웃을 복음으로 이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고 이기심에 요동치는데, 저 쪽 한 사람은 조용하고 평안하다면 당연히 주목을 받을 것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역사를 '아름다운 덕'이라 표현했

게 선전되십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을 선전했습니다(눅2장).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많은 군중이 모여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며 선전했습니다(마21장, 눅19장). 미래에 있을 일로, 정한 때가 이르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대대적으로 선전되십니다(계2:26,22장). 우리는 그 사이, 곧 예수님 재림이 임하기 직전 시대를 삽니다. 사2:2-3에 보면 열방은 결국 여호와와 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곳으로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미리 미리 선전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머리로, 능력으로 하려는 경향을 많이 나타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덕을 가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기희생과 인내와 섬김을 자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분은 오직 예수님 한분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학벌도 없고 집안도 내놓을 것 없는 처녀가 오직 고운 심성과 신앙 하나로 내노라 하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 5년여의 온갖 멸시와 무시 받는 험한 골짜기를 묵묵히 예수님을 부르며 견디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출근하는 남편 주머니에 은혜받은 말씀과 간단한 격려의 말을 적은 쪽지를 매일 넣어주는 일을 잊지 않았습다. 마침내 남편 마음이 감동되고, 결국 온 시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고운 마음을 드리며 살기로 소원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좋은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생애가 예수님을 선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이요 또 특권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선덕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선전할 수 있는 그릇, 자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도우실 것을 믿고, 담담히 주님 선전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 중 세 차례 크

우리 신분은 선덕사 (베드로전서 2장 9-10절)

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바로 '조용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서 어른들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부서진 장난감들을 모아 싸움 한 복판에 쌓았습니다. 그 중 큰 아이가 "어르신들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싸우시면 모두가 이렇게 부서질 것이고 그러면 누가 우리 마을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파국을 차단한 싸움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곧 이어 사랑과도 화평합니다. 중보자로서의 삶은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3.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합니다. 9절 후반절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하

니다. 이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어떤 이론이나 또는 능력으로만 설명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덕'에 속한 일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을 대신해 죄인이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분이 그 권세, 그 힘을 다 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의 손에 못박혀 죽으셨습다. 조롱당하거나 짐팔음을 받을 일 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 잠잠히 당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으로서의 넘을 수 없는 죽음의 문턱을, 우리 위해 넘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아름다운 덕'이라 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모든 선교사는 선덕사로 불리워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뿐 아니라 모든 성도 역시 선덕사로 부르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외곽 엘리콧시티에 위치한 독립교회인 벨엘교회(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에서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1.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장로교 목사.
2.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이상학위를 소지하신 분
3. 연령이 40세 ~ 50대 초반 이신 분
4. 3년 이상의 이민목회 경력(부목사 포함)을 포함하여 총 목회경력이 5년 이상 되신 분 (미국 정규신학교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친 기간을 이민목회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분
6. 2중 언어(한국어/영어)사용에 불편이 없으신 분.

제출서류

1. 1차서류
 - 이력서(한/영 각 1부)
 - 자기 소개서(가족소개 포함)
 - 최근 6개월 내 실교 2편(해당 CD/DVD 또는 website 주소 제출)
 - 목사안수 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2. 2차서류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께 개별 연락드림

서류 제출처 및 기간

1. 제출마감(도착기준) : 2014년 11월30일
2. 제 출 처
 - 우편: 청빙위원회
 -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 3165 St. Johns Lane
 - Ellicott City, MD 21042
 - Email: psc@bethelchurch.org
3. 기 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교회 웹사이트: www.bethelchurch.org
4. 문의: 청빙위원장 이길용 장로 (443-889-9879)

벨엘교회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 달 주 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가족이 함께 보는 크리스천 영화 관람

새로 개학한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는 자녀들, 저녁시간, 또는 주말에 자녀들과 무엇을 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좋은 영화와 좋은 대화의 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시대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특별히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의 감정과 감수성을 사로잡는 미디어 문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문화사역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영화지요.

이미 개학을 하고 첫 수업을 들면서 재미있는 학교생활이기보다는 반기독교적인 수업내용들과 계속 늘어나는 peer pressure, 또는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스트레스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또는 주중이나 주말에 가족들

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구입해서 자녀들과 함께 보시고 이런 일을 자녀들이 겪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도울지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꼭 가져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Irreplaceable

Focus on the Family에서 “바꿀 수 없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가정의 의미를 뼈저리게 상실하고 있는 지금의 미국사회에 다시 한번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어진 영화인데, 매우 깊이 있게 잘 만들어진 영화이며, 자녀들과 함께 그들이 생각하는 가정, 가족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

는 감격을 선사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특히 남학생들이나 운동을 좋아하는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더욱 재미있고 함께 감동받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큰 영화관에서는 이미 끝났지만 아직도 작은 영화관이나 옛날 영화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DVD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The Song

지난 9월 26일에 시작하여 아직도 상영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특별히 이성간의 사랑, 부부관계, 결혼이란 무엇인가 등등을 아름답고도 매우 현실성 있게 다룬 내용으로서 부부들을 위한 영화 같기도 하지만, 지금 공립학교에서 사랑과

Purge의 의미는 “cleans” 즉 깨끗하게 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 영화는 사실 매우 잔인하고, 무정하며 무법시대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표현한 것은 정부가 시민들의 자유를 통제할 때, 결국은 정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 등 하나님의 잣대에서 선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잣대에 의해 선악이 결정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특히 이 영화가 꼭 집어서 표현한 것은 미국이 지금처럼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을 선하다고 조작하고 왜곡하기 시작할 때 결국은 미국이 무법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Purge에서 실제로 “God”이라고

God's Not Dead, Irreplaceable, Heaven is for Real 등 추천 기독교영화가 아닌 PURGE, Giver 등은 무서운 이 시대 알려줘

과의 대화의 장을 의미 있게 가져보시기 원하시는 가정이 있으시다면, 올해 매우 큰 감동을 선사했던 영화들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립니다.

몇 달 전부터 최근까지 극장에 나와 세상을 놀라게 한 크리스천 영화들과 기독교 사상을 띤 영화들인데, 너무 너무 파워풀하고 깊은 감동적인 영화들이기에 모든 영화들을 다 강력 추천합니다!

God's Not Dead

이 영화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이나 정체성에 대해 크게 도전을 받을 때,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그를 “혼자”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알려주며,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매우 파워풀한 영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음악을 Newsboys가 불렀는데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이 곡은 이미 많은 인기를 학생들에게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실제로 플로리다주 대학교에 있는 Social Intercultural 수업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적은 후 짓밟으라”고 해서 한 크리스천 남학생이 거부하면서 벌여졌던 일을 반영하여 비슷하게 다루었는데, 사건만 다른 사건으로 만들어 내용

해 줄 것입니다.

Heaven is for Real

이 영화는 저도 DVD를 주문해 봤는데, 사람들의 입소문에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감동 깊은 영화였습니다. 마치 4살짜리 어린아이의 천국경험이 전체 주제인거 같지만, 사실상은 4살짜리가 자기가 본대로 형용하는 천국에 대한 어른들의 반응과 어른들이 종교라는 마스크 뒤에 숨겨진 갈등들을 솔직하게 잘 그려낸 영화입니다. 결국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과 종교주의 신앙에 대한 갈등들을 솔직담백하게 그대로 담아낸 내용으로서, 가족들이 함께 감동하고, 함께 성경적인 천국에 대해 유익한 토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화로 강력 추천합니다.

When the Game Stands Tall

이 영화는 “크리스천 영화”라는 라벨은 없지만 오래전에 나왔었던 Courageous라는 영화를 연상케 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풋볼의 팀 코치와 영화 내용들도 Courageous 처럼 기독교 정신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역경 속에서 전체 팀이 어떻게 기도하며 이겨나가는지 깊이 있게 보여주는 깊은 감동과 가슴 뜨거워지

결혼에 대해 잘못 교육받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봐도 충분히 좋은 영화로서 강력 추천합니다. 특별히 부부들끼리만 가서서 보고 함께 좋은 대화를 열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The Giver

이 영화는 1994년 Lois Lowry라는 사람이 쓴 책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정부가 은근히 빼앗아 가고 있는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유나, 시민들의 신앙과 삶의 자유, 심지어는 자녀들의 점심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시민들의 행동까지 정부가 통제하기 시작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 앞에 이 영화는 시민들에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 때 한 나라가 어떻게 무섭게 변할 수 있는지를 따끔하게 경고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정부가 하나님을 버리고 나라를 통치할 때 얼마나 수 있는 무서운 모습들을 토론할 수 있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PURGE

기독교영화가 아닌 이 영화는 너무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수 있는 시대를 무시무시하게 잘 표현했다는 면에서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Purge의 의미는 “cleans” 즉 깨끗하게 한다 라는 의미인데, 이 영화는 사실 매우 잔인하고, 무정하며 무법시대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표현한 것은 정부가 시민들의 자유를 통제할 때, 결국은 정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 등 하나님의 잣대에서 선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잣대에 의해 선악이 결정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미국은 매우 반기독교적이고, 무법적이며, 비인간적입니다.

이 영화는 자녀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영화는 더 더욱이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영화계에서 미국의 미래를 이렇게 신랄하게 겁나도록 표현하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DVD들은 이왕이면 Christianbooks.com에 가서서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Amazon은 반기독교인 단체들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 안합니다. 더 많은 뉴스들은 Facebook에서 TVNEXT.org를 찾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np0316@gmail.com

Q: 이스라엘 국가의 다윗의 별과 아래위의 두 청색 줄은 무엇을 뜻하는 지요? 다윗의 별은 무엇을 뜻하는 지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슬람의 두 종파의 싸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플러톤의 배 권사

A: 이스라엘 국가의 다윗의 별 국가의 아래위로 청색 줄이 있는데 위의 청색줄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아래의 청색 줄은 애굽의 나일 강을 말합니다. 그 중간에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유프라테스 강과 나일 강 사이의 모든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그려져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식 명칭은 히브리어로 Magen David이라 하는데 다윗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의 별을 왜 사용했는지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나 유대인들에게는 노란색 다윗의 별을 가슴에 달게 한 나치 대학살이 후 오늘날 다윗의 방패는 가히 이스라엘 국가의 확고한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왕이자 장자 그 후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된 위대한 왕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

유프라테스강부터 나일강사이가 이스라엘 표시

이며, 그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삼각형 두 개를 합쳐 놓은 문양을 다윗의 방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마침 그 모양이 별처럼 생겼기 때문에 “다윗의 별”이라는 또 다른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방패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의 심성 저변에는 다윗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보호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가 있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국가에 다윗의 방패를 그려 넣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의 상징물로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싫어하며 지도에서 없애 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아랍 민족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선지자는 무함마드입니다. 632년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나면서 후계 문제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친구인 아부바크르를, 시아파는 사위인 알리를 후계자로 뽑았습니다. 전세계 16억 이슬람교도 가운데 수니파가 90% 가량인 다수파입니다. 집권 세력 역시 수니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와 이란, 시리아는 시아파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이라크 반군이 ISIL은 이라크와 시리아 일대에도 수니파 국가(IS)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니파였던 사담 후세인 정권이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무너진 뒤부터 힘을 키우면서 기회를 노려왔습니다. 수니파 반군이 바그다드를 향해 파죽지세로 진격하자 이라크 내전에 주변국까지 개입했습니다. 시아파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은 병력을 보내 이라크 정부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수니파 정부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 에미리트는 이라크 내부 문제에 다른 나라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는데 메시아가 오면 평화를 준다면서 메시아가 오려면 지구상에 사탄을 없애버려야 하는데 작은 사탄은 이스라엘로 큰 사탄을 미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청빙

조지아주 제2의 도시인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 29년의 목회 열매를 함께 추수하며, 25,614 S/F의 새 예배당으로 확장이전하면서 주님나라 확장을 꿈꾸실 두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현재는 출석교인 310명(영어회중 40명 포함)이며, 아틀란타 공항에서 남쪽으로 90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32만명(한인인구 약 2천명)정도이며,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다운타운으로 선정된 전원의 도시이고, 대도시에 비하여 생활비 및 각종 보험비가 저렴합니다.

- 어린이 및 성인 교육담당 교육목사(전도사)
- 행정 및 은사팀들(찬양) 담당 부목사

* 두 사역자의 기본자격 *

-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
- 2. 개인 경건의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
- 3. 동성애는 죄의 성향이기에, 동성애자를 치료받아야 할 자를 품는 자

자격요건

신학교 졸업 혹은 예정자(교육목사나 전도사는 기독교 교육 전공자 우대) 이종언어 사용자(교육목사나 전도사는 1st 영어, 2nd 한국어) 미국 체류 및 해외 여행에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한글 및 영문 이력서
학위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신앙고백 및 목회철학(한글과 영어)
추천서 1매(일부 날인 필수)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진 1매 포함)
PIF(Personal information form) Part 1 & 2
(download: http://www.pcusa.org/resource/personal-information-form/)

제출마감

2014년 10월 15일(수)
Dr. Ha, Jong Wook (청빙위원회장 하중욱 장로)
5301 Sidney Simons Blvd. Columbus, GA 31904
TEL. 706-580-9667 Email: ha_jong@columbusstate.edu
교회 Website: www.rockpc.org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광고

아름다운 해변 도시 산타바바라에 위치한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는 설립 15주년을 맞이한 신앙공동체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꿈을 품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와 차세대목회에 헌신하실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청빙요건

- 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에 가입되었거나 혹은 가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2. 본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경력 5년이상인 분
- 3. 한영 이중언어가 가능하며 사역 감당에 신체 건강하신 분
- 4.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하자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1. 한글 영문 이력서 및 가족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 2. 신앙간증서와 목회계획서(목회동기, 목회철학, 목회비전)
- 3. 최종졸업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목사안수 증명서
- 4. 최근6개월 이내 설교 두편CD 또는 동영상
- 5. 사역교회 후보 일개월분과 교회 홈페이지 주소
- 6. 추천서 (2인 이상)

접수마감: 11/ 08/ 2014

- 참고 사항 : 모든 서류는 이 메일로 제출해주시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처: e-mail : sbkpcbible@gmail.com
- 본교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sbkpc.org)를 참조하십시오.

산타바바라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일본의 류우큐우인(RYUKYUAN)



일본의 류우큐우인들은 류우큐우 제도(Ryukyu Islands)에 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7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종족이다. 오키나와(Okinawa)를 포함한 이 조그만 열도는 일본의 남단인 류우슈우와 대만의 북동부 사이 일본의 남서쪽 지점에 위치해있다. 류우큐우인들은 일본 민족이면서 동남아시아인의 후손들이다. 그들이 쓰는 언어는 섬마다 다르며 또

한 마을마다 방언이 달라진다. 그들의 방언은 모두 일본어와 상당히 비슷하지만, 실제 서로 다른 종족들 간에는 의사소통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 과거 일본인들 사이에 많이 사용됐던 토착 언어들 중에서 몇몇 언어들만 북부와 남부의 아마미-오시마(Amami-oshima), 도쿠노-시마(Toku-no-Shima), 오키노-에라부(Oki-no-erabu), 남부 류우큐우인(Southern Ryukyuan), 야에야마(Yayeyama)어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언어들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차 일본어로 대체됐고, 젊은이들은 토착언어를 거의 알지 못한다. 과거 중국과 일본의 속박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은 참고 순응하는 것을 배워야 했으며, 이들은 "후진적"이라거나 "문화적으로 덜 떨어진" 민족으로 여기기도 했다.

삶의 모습

오래 전 류우큐우인들은 중국과 일본, 다른 동양권 지역의 항구들로 다니며 독립 상인으로서 활동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들 대부분이 농부들이며 주요 작물이자 환금작물로서 고구마와 쌀을 재배하고 있다.

류우큐우인들의 문화생활은 가족중심이다. 모든 가족구성원들이 발일을 한다. 여자는 전통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가족의 전통에 따라 맏아들은 부모의 재산에 대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린다. 결혼하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며,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이미 맏아들은 다른 가족들과 전체 집안 재정을 돌볼 책임을 갖는다.

어린이는 8-9세에 학교에 들어가 16세 무렵까지 계속 공부한다. 현재 이 섬에는 3개의 대학교가 있다. 과거에 사회가 단속했을 때는 그들의 삶의 목표가 많은 가족과 음식, 친구를 얻고 가능한 한 대가족을 꾸리는 것이었지만, 일본인들이 1879년 이 섬을 장악하고 난 후에는 그러한 삶의 목표들이 바뀌었다. 일본인은 학생들이 일본어를 쓰도록 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고유 언어를 쓰는 이유로 교실에서 벌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젊은 이들은 류우큐우가 더 큰 범위의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중요성을 두면서 정체성을 찾게 됐고 결국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로 인해 그들의 토착 언어는 사라졌다.

교육과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한 사회의 진보는 외부요인들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환금작물의 판매, 관광업을 통한 돈벌이, 미군기지에서 병사로 근무하는 것 등이

다. 또한 많은 류우큐우인들은 보다 더 나은 생활조건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더 큰 섬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했다.

신앙

자료에 의하면 류우큐우인들은 불교신자라고 하지만 전통적인 사머니즘 관습이 아직도 유행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많은 신들과 악마, 조상의 영혼을 믿는다. 조상의 영혼은 그들이 묻힌 무덤에서 살고 있으며, 후손들이 정기적으로 조상의 영혼들을 부르고 숭배할 때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을 영원히 자기 가족사(史)의 연장선에서 존재한다고 여긴다.

또한 "카미"(kami)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조상의 영혼과 세상의 모든 영역, 바다와 육지 등 다른 지역까지 통제한다고 믿는다. "조상 영혼숭배"는 사회적 범위에서 지켜지는 신앙이며, "카미"는 개인

적 영역으로 각 가정에서 지켜지는 신앙이다. 특히 류우큐우인들은 "카미"를 위로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개인에게 화가 닥쳐올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어떤 결정이든 내리기 전 "카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종교 의식을 주관하며 조상의 사당을 돌본다. 여자들은 "카미"와 사람들 간의 "중재자" 역할을 맡게 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일본인들은 류우큐우인들을 이류(second class) 시민쯤으로 여긴다. 그런 이유로 류우큐우 제도는 본토의 늑은이나 장애인들의 하치장이 됐다. 류우큐우인들은 국가적 자부심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연합을 도모했지만 그들이 바라던 평화는 얻을 수 없었다. 그들의 참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남침례회, 동성에 지지 교회 '제명'

미국 남침례회(SBC) 캘리포니아노회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지지하는 교회를 제명했다.



25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SBC 캘리포니아노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무기명투표를 거쳐 뉴하트커뮤니티 교회를 제명했다. 운영위원회의 대변인은 "우리는 뉴하트커뮤니티교회가 SBC의 핵심적 성경 가치에서 떠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뉴하트커뮤니티교회의 대니 코르테즈 목사는 지난 2월 주일예배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설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동성애자로 사는 이웃들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고 이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품게 됐다고 했다. 목사의 아들도 동성애자였다. 그는 이후 동성결혼식에서 주례를 하는 등 친동성에 영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SBC에 남길 원했다.

교회는 동성애 이슈 때문에 두 쪽으로 나뉘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교인들은 교회를 나가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다.

IS, 기독교 박해에 지구촌 경악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반군 세력 '이슬람국가(IS)'가 점령 지역인 이라크에서 기독교 말살 야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이라크 등 중동에서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힌 '절멸(絶滅) 경고'가 현실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9일 미국 방송 CNN 등 외신에 따르면 IS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에게 대량 학살과 납치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 행위를 벌이고 있다. IS는 지난 6월부터 최근

까지 모술과 카라코시, 니네베 등 이라크 북부에 집중된 기독교 마을 대부분을 장악했다. IS 무장대원들은 기독교인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들은 미처 마을을 떠나지 못한 기독교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마크 아라보는 "IS 무장대원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는 족족 죽였다"고 증언했다. 특히 아이들을 참수하는 극악무도한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모술의 공원에는 목이 잘린 처참한 시신들이 전시돼 있다고 현지 주민들은 전했다.

IS는 표적 학살도 자행하고 있다. IS 무장대원들은 기독교인 집에 붉은색 잉크로 표시를 한 뒤 "곧 죽이러 올 것"이라며 개종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참수했다. 기독교인의 아내와 자녀를 납치해 신부로 맞는 일도 벌어졌다.

또 여성을 성노예로 삼았다. 이슬람권 적십자인 적신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카라코시에서 최소 500여명의 기독교와 소수종교 여성이 성노예로 팔렸다. IS는 남성을 끌라 죽이고 유괴한 여성 가운데 미모가 출중한 여성을 간부에 바쳤다. 친구 친척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도망친 10대 소녀 아리아는 언론 인터뷰에서 "IS는 코란을 읽고 개종하라고 강요했다"며 "많은 친구들이 IS 무장대원들에 강간당하는 장면을 목격해 괴롭다"고 말했다.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반달리즘 현상도 유행하고 있다. IS는 지난 24일 7세기 기독교 유적인 이라크 티크리트의 '아시리아그린교회'를 폭파했다. 이라크 초기 기독교인 아시리아인이 건립한 기독교 건축물이다. IS는 지난 7월 모술에서 선지자 요나와 다니엘의 무덤을 파헤쳤다. 특히 요나의 무덤에서 100만 달러(약 10억원) 상당의 황금상 여러 개를 약탈했다. 이라크 정부 박물관에 따르면 IS는 9월 현재 모술과 인근 지역에서 요나의 무덤과 같은 고고 유적지 30여곳을 파괴했다.

IS는 이라크 북부 교회 대부분을 폐쇄했다. IS는 십자가를 때고 그 자리에 IS를 상징하는 검은색 깃발을 꽂았다. 수도 바그다드에서 성조지성공회교회를 이끄는 앤드류 화이트 사제는 "지난 21일 니네베에서는 20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성찬식이 없었다"며 "IS가 교회를 폐

쇄하고 그곳에 사무실을 차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화이트 사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라크를 떠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라크 기독교 인구는 40만명 정도다. 2003년 100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이달 초 "IS가 이라크 북부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종교인을 상대로 '인종 청소'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당국, 기독교 탄압 강화

차이나에이드 제공 중국이 최근 가정교회 소탕 작전을 벌이고 기독교 학교를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등 기독교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공안 200여명은 지난 21일 광둥성 포산 일대 다수의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기독교인 100여명을 불법 집회를 가진 혐의로 체포했다고 기독교인 박해 감시단체 ICC가 보도했다. 체포된 기독교인 대부분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풀려났으나 30여명은 아직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C는 "지역 당국에 구금된 나머지 교인의 석방과 종교 자유 보장을 당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제선교 이사회(IMB)에 따르면 포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는 도시로 꼽히고 있다. 2년 전 6명이 예배를 보던 포산의 한 가정교회에는 현재 200명이 출석한다.

안후이성 푸양시의 기독교 중·고교인 원창학교는 지난 1일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폐교됐다. 폐교 통보 4일 만이었다. 광한 교장은 "시의 안전 기준에 따라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시의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지역의 한 목사는 "중국은 기독교인이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기독교학교를 기독교인 양성 소로 여겨 집요하게 괴롭히다 끝내 문을 닫게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상교회가 운영하는 원창학교는 2009년 개교 이후 10차례 이상 이전 압박을 받았다. 교회가 설립한 또 다른 초등학교도 지난해 폐교됐다. 학교는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보낸 서한에서 "시

의 부당한 대우로 학생 800여명이 갈 곳을 잃었다"며 폐교 철회를 요청했다. 기독교인권단체인 차이나에이드는 "7월과 8월 하이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의 교회에서 운영되는 유치원이 불법 상행위를 이유로 각각 폐쇄됐다"고 전했다.

미국인 49% "교회, 사회이슈에 적극"

교회가 정치에 적극 관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미국인들의 의식이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퓨리서치는 지난 2-9일 미국 전체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성인 2200명(오차 ±2.5%포인트)을 대상으로 종교 의식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회 등 종교단체들이 정치·사회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일을 자체해야 하느냐 적극적으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자제해야 한다"는 48%보다 많았다.

2012년에는 '적극 의견 개선' 찬성이 40%, '자제'가 54%였다. 퓨리서치 조사 결과, 교회 등 종교단체의 정치·사회 문제 의견 개선에 관한 찬성이 반대를 앞선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찬성 의견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13년만에 처음으로 2001년-2006년 조사에서 찬성의견이 51-52%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 44%로 급감한 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또 "미국인들의 삶에 종교가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느냐 또는 감소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인들의 72%가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2002년 조사에서는 '감소' 응답이 52%, '증가' 응답이 37%였다.

이처럼 교회의 정치 관여에 대한 찬성이 늘어난 것은 보수적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중 "교회가 사회·정치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율이 66%에 달했다.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자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 신청 자격 Qualification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 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 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 장학금액 Scholarship Amount

일인당 \$1,000 per person

● 신청마감 Application Deadline

2014년 10월 31일 / October 31, 2014

● 신청 서류 Required Documentations

-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d)
-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 서류 보내실곳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oad, Kalamazoo, Michigan 49008

● 문의사항 For more informations: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T/ 773-206-3809(Hyomyeong Rhiew) / hmrhiew@sbcglobal.net

2014년 9월 1일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유효명/ 장학위원장: 이상진/운영부: 홍순백/서기:김정균/홍보담당:이상진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 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5,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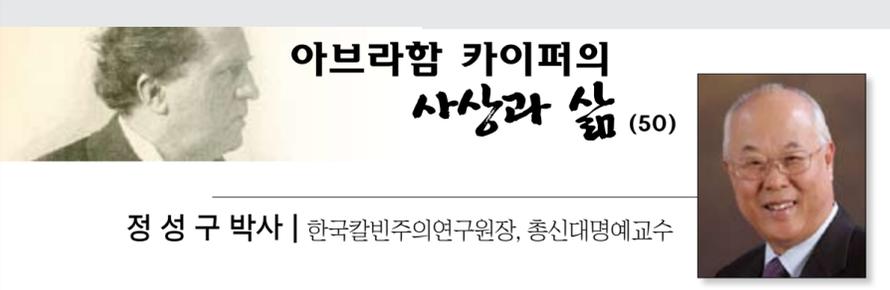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세요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0)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카이퍼 목사의 설교내용(2)

카이퍼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보다 영적이고 도덕적이며 고상한 인격을 갈망해야 하는데, 그러한 이상주의를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이다. 이것이 개인에게 있으면 위대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한 민족이 그러한 이상주의를 갖는다면 그 민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룩한 이상을 불어 넣어야 하는데 그것은 설교자의 몫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의 변화도 강단에서 복음을 증거한 설교자의 메시지가 거룩한 하나님의 건설에 대한 꿈이 있었다. 또한 카이퍼는 그의 메시지에서 특별히 현대인의 우상에 대해서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다. 카이퍼가 약 백년

전에 했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와 다름없다.

은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 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적극적으로는 막연한 이상들이나 갑



에 열성을 보이며, 고상한 삶의 형식에 대한 사랑과 충동을 느끼거나, 감각적인 쾌락과 부를 추구하거나 정열적인 자극을 쫓습니다... 이상숭배가 사라져 환상에서 실제로, 이념에서 본질로, 막연한 종교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추상적인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상숭배 운동은 바로 이교도의 특징이며, 현대의 우상은 교묘히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파고드는 것이다. 오늘의 이상숭배사상은 바로 인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일갈한 것은 한 세기를 앞서 외친

피는 그의 메시지를 통해 현대인의 이상숭배를 통렬히 경고 경계했다. 이는 오늘 우리시대의 메시지와 다르다.

카이퍼의 메시지를 읽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것은 상징주의에 대한 경고를 읽을 수 있다. 카이퍼는 시편 91:1을 해설하는 중에 상징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즉 "상상력이 풍부한 상징은 우리에게 영이신 전능하신 주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을 구하며 그분의 날개 속에 숨을 곳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주의가 너무 극단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물질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려는 병폐적 신비주의(innige mystiek)

형상을 만들게 함으로서, 또는 사람을 범신론적 구덩이(Pantheistische modder) 빠뜨려 영과 물체를 혼합시켜 마침내 지나친 정욕에 빠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여 그 영혼을 질식 상태로 몰아넣음으로서 이상숭배로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순전히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영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

카이퍼의 성경에 대한 분석은 이토록 예민하다. 혹자는 카이퍼의 신학이론이 성경적인 분석이 약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카이퍼의 성경해석의 분별함과 수많은 성경목상 자료를 읽지 않고 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카이퍼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우리의 영혼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얼굴을 맞대고 우리와 만나시며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하듯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9면으로 계속)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가져야 고상한 인격의 이상주의 가질 수 있어 이상숭배 상징주의 경고·하나님 구원능력, 강력한 자석 힘으로 표현

즉 "현대의 이상숭배 운동은 거의 비인격적 대상에 관한 것으로서, 이상들의 신상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도, 중국 그리고 일본에 널리 퍼져있는 이상숭배를 경멸합니다. 이 새로운 이상주의 운동은 다음의 양면으로 추진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그것

각적인 쾌락과 돈에 정신없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상 숭배적 이교주의를 경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상스럽고 힘들게 이 새로운 형태의 이상숭배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이교도는 휴머니즘을 표방하고, 예술

메시지다. 이는 일찍이 칼빈이 주장했던 바도 유사하다.

칼빈도 말하기를 "인간의 영이 얼마나 크게 이상 숭배로 기울어져 있는가" 또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이상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이상숭배에 속박되어 있다"고 했다. 그와 같이 카이

퍼의 위험에 대해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God is een Geest). 그러므로 순전히 영적인 방법 이외에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려는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과장된 상징주의는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나 귀금속으로 물질적인 하나님의

가정사역 칼럼



정서지능(EQ)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예전에는 IQ를 높이는 교육이 선 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심지어는 돌도 되지 않은 아이들의 IQ 높이는 음식, 음악, 교육 등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과연 IQ만 높으면 모두 영재가 되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까요? 그러나 삶을 지배하는 것은 IQ가 아닙니다. 맨사클립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Q가 135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는 맨사클립 가입자들은 전체 인구의 IQ 분포에서 상위 2%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맨사클립 회원 중 학창시절 성적이 최상위권에 속했던 사람은 19%에 불과했고, 반면 중하위권에 속했던 사람은 23%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전 교육부장관이자 교육심리학자인 서울대 문운림 교수는 "아이의 공

부가 뒤쳐지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공부에 대한 의욕, 공부에 대한 주의집중력, 공부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서입니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호기심이 떨어져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이는 IQ 문제가 아니라 정서지능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IQ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감각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정서지능(EQ)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공부를 할 때 잘 알아듣고 기억을 하고자하는 능력은 IQ의 능력이지만 공부를 잘하고 싶고, 하기 싫은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능력은 정서지능에 속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삶은 IQ로만 작동되지 않습니다. 김연아의 집중

력, 박지성의 투지, 오바마의 공감 능력 등은 탁월한 정서지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서지능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조사에 의하면 정서지능의 30%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으며, 70% 성장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두뇌의 비밀, 감정이 기억을 좌우한다

정서지능도 뇌의 생물학적인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뇌의 대뇌 피질은 인간의 감정을 관할한다고 해서 '감정뇌'라고도 불립니다. 분노와 불안, 두려움과 욕구같은 기본적인 감정을 관장하며 정서관리 능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대뇌변연계 안에는 인간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있습니다. 인간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일시적으

로 보관하는 창고인 셈입니다. 감정과 욕구를 관할하는 해마가 대뇌 변연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서가 기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즉 감정이 개입된 기억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책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개에게 물렸던 기억, 일상의 일이 공포나 두려움과 같은 특별한 감정과 결부되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감정과 기억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뇌과학 연구결과들에 보면 감정과 인지는 분리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감정뇌의 발달에 따라 인지와 정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연구들은 어려서 감정뇌가 잘 형성된 사람이 고등 인지기능과 정서지능이 조화롭게 발달한다는 확실함을 발표합니다. 뇌의 발달에 있어서는 질량의 문제보다는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더 중요합니다. 두뇌 내부의 가지처럼 얽혀있는 뉴런들의 신경망 회로 형성이 지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여섯 살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살 이전 아이들의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때 받은 다양한 자극

"태어나자마자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는 곳에서 기른 쥐와 많은 장난감과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좋은 환경에서 기른 쥐를 통해 실험했습니다. 나중에 이 쥐들의 뇌 조직을 검사했더니 풍요로운 환경에서 많은 자극을 받으며 자란 쥐가 신경망, 시냅스가 풍성하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다양한 자극을 받은 뇌가 더 많은 발달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초적인 신경망이 제대로 발달 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와 감정처리 능력이 좋습니다.

정서지능을 높이려면

정서지능은 주된 양육자인 엄마에게 달려 있습니다. 엄마의 양육 태도가 정서지능을 결정합니다. 울어도 따뜻하게 안아주거나 달래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자주 노출된 아이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스트레스 조절체계를 제대로 확립했기에 따라 삶의 질은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격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충분한

히 달래주지 않으면 점차 뇌의 경보체계가 과민반응을 하게 되고 이 체계가 굳어지게 되면 작은 스트레스에도 지나치게 힘들어 하고 늘 걱정하거나 조조해하고 화를 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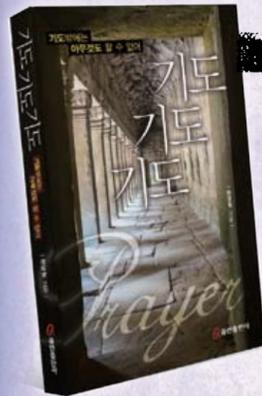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확립한 과민한 스트레스 반응체계는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우울증, 불안장애, 게임 중독, 공격성향 같은 증세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두뇌체계를 어린 시절에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일상의 삶에서 맺어가며 성령충만의 실재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정서지능을 높이면 자신이 가진 기질을 좋은 기질로 활용하는 도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성령충만은 자녀양육의 최선의 길입니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한명철 목사의 저서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 기도 기도

본서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을 모델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작은 불씨를 모아 큰 불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36면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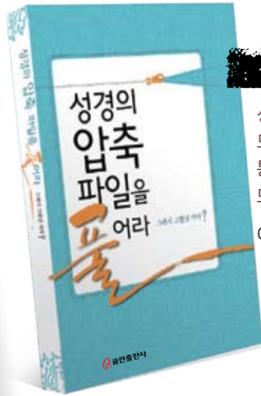
숨겨진 신화



이 책은 <인봉된 책><개봉된 책> 요한계시록 주석을 요약해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게 작업한 것으로 계시록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위한 주님의 메시지가 확연히 드러나고 잘 활용될 것이다.

한명철 지음 / 304면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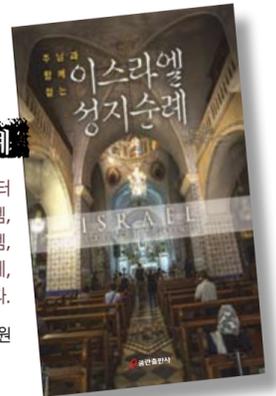
성경의 압축 파일을 풀어서



성경은 일일이 다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압축 파일과도 같다. 성경의 배경을 알면 그 압축 파일을 풀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성경의 배경을 알게 되고 또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진희 지음 / 344면 / 13,000원

이스라엘 성지순례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스라엘 구약 역사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배경을 살펴보고 나사렛, 예인케렘, 베들레헴,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과 공생애 사역지, 예루살렘, 기타 이스라엘 성지를 지도와 사진을 곁들였는데, 전문 사진작가 Lisa의 손길로 현장감을 더했다.

탁은숙 지음 / 328면 / 20,000원

인봉된 책 / 개봉된 책



요한계시록 주석- 한명철 지음 / 1-11장 / 672면 / 25,000원 12-22장 / 584면 / 23,000원

봉괴의 신호음이 들릴 때

고난의 현실을 피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헤쳐 나온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그들의 실패와 재기를 통해 고난 극복의 지혜와 기술을 담았다.

한명철 지음 / 296면 / 13,000원

창조과학 칼럼 (206)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15) 고정된 종류 vs. 무한한 다양성

각각의 생명체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다. 성경에서 '종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민(min)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고정되어있다(fixed)' 혹은 '한계 안에 갇혀있다(limited)' 즉 다른 종류와는 분리되어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각 생명체들이 창조 이후 변하지 않고 그 종류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뜻이다.

'종류대로' 창조된 증거는 화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관찰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 현재 생물체의 모습과 화석의 모습은 서로 같다. 찰스 다윈은 자신의 대표작인 "종의 기원" 마지막 개정판(6판 p. 413, 1872년)에서 중간고리 화석이 단 한 개도 없다고 고백하였다. 또, 월송이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이론은 진화론자도 믿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진화의 증거는 과거에도 없고 지금도 없는 것이 확실하다. 반면에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기

이다. 그러나 실제로 변이는 2%의 유전정보(유전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98%의 표현되지 않는 부분(non-coding DNA)에서도 일어난다. 이 무궁무진한 변이의 가능성을 통해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두려운(fearful) 능력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다윗의 노래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보다 많도소이다"(시136:17-18a).

변이는 '종류대로' 창조된 생명체들과 사람들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쉽사리 멸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창조주의 한 가지 장이다. 처음 창조된 세상에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더 이상 좋을 수 없었던 최적의 환경에서 살았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은 노아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빙하시대의 결과로 추위와 더위가 극심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수)

공원에서 생각해보는 교회의 모습

의사를 만나러 갈 때마다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냐고,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 정도는 삼십분씩 걸어야 한다고 늘 같은 말을 듣는다. 그럴 때마다 노력하고 있다고 대답은 하지만 바쁜 스케줄에 하루에 삼십분씩 걷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는 날도 있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날도 일주일에 적어도 이, 삼일은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침시간에 조금 여유가 있는 날은 집 앞에 있는 공원으로 갈아가지 산보도 시킬 겸 걸어가는데 그 공원에서는 아침마다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한다. 아무나 원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어서 갈 때마다 중국 사람들 틈에 끼어서 운동을 한다. 운동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 첫 시작으로 스트레칭 하는 운동을 30분 정도 하고 나면 현대음악에 맞추어 움직이는 좀 더 경쾌한 운동, 그 다음에는 타이치, 그리고 주로 팔을 열심히 흔드는 운동을 연이어서 거의 두 시간 계속한다. 나는 아무 운동이든 내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하고 있는 운동을 30분 정도 참여하고 오지만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닮은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먼저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다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운동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어느 때나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교회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활짝 그 문이 열려 있는 것과 같다. 나도 처음에는 웬 동양 사람들이 모여서 보기에 좀 우스운 몸놀림의 운동을 하고 있기에 구경하듯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중의 한 사람이 와서 같이 하고 친절하게 청하기에 한번 따라했다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는대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믿음에 큰 확신 없이 교회를 기웃거리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와 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성도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러 종류의 운동을 인도하는 사람(선생님?)이 다르다. 스트레칭을 인도하는 선생님이 끝나면 또 다른 여자 분이 나와서 현대적인 음악에 맞춰 몸풀기와 타이치를 인도하고, 그 후에는 다른 남자 선생님이 나와서 한참이나 손을 흔들며하는 운동을 인도한다. 인도자들은 각자 자기에게 제일 익숙한 운동만 인도하고 다른 사람이 인도할 때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운동을 모인 사람들과 같이 따라한다. 물론 그 분들이 지도비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와 공원에 모였으니 함께 운동하자고 모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아침마다 뭉클뭉클 들고 오는 것도 귀찮을 수 있을 텐데, 기쁘게 주일을 제외한 일주일에 여섯날씩 빠짐없이 인도하는 것이다. 그 분들 간에는 어떤 경쟁도 갈등도 없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리더들이 각각 은사에 따라 다른 지체를 섬기며 다른 사람이 지닌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면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시끄러운 일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공원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 가장 주된 목적은 건강을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은퇴 후 심심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공원에 오기도 한다. 운동을 하러 온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서 인도하는 선생님을 따라 한다. 때로는 동자가 우습기도 하고 서투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쫓아간다. 그들은 마치 교회를 세우려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도자를 따라가는 성도들 같다. 반면에 운동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러 아침부터 공원에 온 사람들은 적당히 따라하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웅성웅성 수도도 떨고 다른 것을 한다.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커서 운동에 방해가 될 정도로 떠들기도 한다. 이 사람들은 구경꾼처럼 사람 만나는 재미로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며 슬레데없는 말로 참관만 하는 엉터리 교인들 같다. 이와 공원에 왔으면 운동하는 시간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 후에 교회를 하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얘기를 나누면 좋으려만 운동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은 마치 열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교인들을 연상하게 한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위한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으면 리더들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한 마음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또한 따르는 자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앞서 인도하는 자들을 전심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웃기웃 교회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공동체의 삶에 초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마련하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메일: lpyun@apu.edu

진화론이 주장하는 '소진화' 는 '변이' 의 잘못된 단어 선택 변이의 비밀은 유전정보 재조합...환경변화에 적응력 가져

록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더욱이 유전법칙에 의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당연하므로 '종류대로'의 창조는 과학 법칙과 잘 어울리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생명체들은 부모와 100%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지도 않는다. 같은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들은 언제나 다르다. 진화론은 이 변화를 확대 해석하여 진화의 증거로 삼았다. 그 결과로 나온 용어가 "소진화(micro-evolution)"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잘못된 선택된 것이다. 올바른 단어가 있는데 바로 "변이(variation)"이다. 진화론은 존재하지 않았던 수십억 년의 장구한 역사를 기반으로 변이를 진화의 증거라고 믿는 믿음이다. 그렇다면 변이는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만약 아들은 아빠와 100% 같고 딸은 엄마와 100% 같게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있는 같은 또래의 모든 남자는 다 똑같이 생겼을 것이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여자도 나이 차이만 있지 모두 같게 보일 것이다. 개들도 하나같이 똑같고 모든 고양이들도 다 똑같다면 어떻게 될까? 변이가 없는 세상은 참으로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지혜롭고 능숙한 창조자



변이
창조된 한계 안에서 각 개체가 갖는 독특성은 거의 무한한 유전정보의 재조합 결과인데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가 해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일 것이다. 변이(variation)의 비밀은 유전정보의 재조합(genetic recombination)에 있다. 난자나 정자 혹은 암술이나 수술이 만들어질 때는 부모의 유전정보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유전정보의 재조합이 일어나도록 디자인 되어있다. 각 부모에게서 한 발씩 물려받은 유전정보에는 같은 정보가 들어있지만 두 개의 성능이 똑 같지가 않다. 예를 들면 피부색을 만드는 멜라닌 유전정보를 각 부모에게서 한 발씩 물려받지만 아빠의 유전정보의 성능이 엄마의 것보다 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모양이나 색깔, 손톱

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이 유전정보 재조합이다. 유전정보 재조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난자와 정자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유전정보의 조합이 된다. 사람의 경우 약 25,000가지의 유전자가 있는데 각 유전자는 부부 간에 평균 6.7% 정도 다르다고 한다. 이 유전자만을 가지고 재조합을 시도해 보아도 무려 10504(=225000*0.67)이나 되는 서로 다른 난자와 정자가 생겨날 수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총 수가 1080이므로 사람의 변이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우주 공간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지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것

하고 사막같은 살기 어려운 환경이 생겨났다. 만약 변이 가능성이 없었다면 창조된 종류들이 너무나도 쉽게 멸종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각 종류들은 각각의 한계 안에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털이 길어 추운 곳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개가 생겨날 수 있고, 피부가 검은 자외선이 강력한 적도 근처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고, 등에 솟아 오른 혹에 지방을 축적하여 사막에서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낙타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무한한 변이 가능성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창조주의 뜻과 배려가 들어있음이 분명하다.

변이에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과 지혜와 배려가 들어 있다. 완전히 분리(고정된) 종류 안에서 한없는 다양함을 가능케 하시는 경이로운 하나님은 그 분 안에서만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이메일: mailfowoschoi@gmail.com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철학교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조순직 목사
드림교회 담임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한반도 회복 기도 운동연합 대표회장
CTS 운영이사
총회(합동) 부흥사회 증경회장

날짜 2014년 10월 23일(목) ~ 11월 6일(목)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2014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월 ~ 9월 금식기도원(신앙) 12월 ~ 15일 우리교회(강화) 16일 ~ 19일 갈멜산(안양)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3월 ~ 6월 GST 3년 신학생 훈련 10월 ~ 13일 갈멜산(안양) 14일 갈멜산(안양) 15일 갈멜산(안양) 16일 갈멜산(안양) 17일 ~ 19일 LA 베냐민(강화)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1월 ~ 8월 LA 베냐민(강화) 9월 ~ 13일 갈멜산(안양) 14일 갈멜산(안양) 15일 갈멜산(안양) 16일 갈멜산(안양) 17일 ~ 19일 LA 베냐민(강화)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3월 갈멜산(안양) 4월 갈멜산(안양) 5월 갈멜산(안양) 6월 갈멜산(안양) 7월 ~ 9월 목동교회(강화) 10월 ~ 13일 갈멜산(안양) 14일 갈멜산(안양) 15일 갈멜산(안양) 16일 갈멜산(안양) 17일 ~ 19일 LA 베냐민(강화)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1월 ~ 10월 LA 베냐민(강화) 11월 ~ 13일 갈멜산(안양) 14일 갈멜산(안양) 15일 갈멜산(안양) 16일 갈멜산(안양) 17일 ~ 19일 LA 베냐민(강화)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9월 ~ 11월 갈멜산(안양) 12월 갈멜산(안양) 1월 갈멜산(안양) 2월 갈멜산(안양) 3월 갈멜산(안양) 4월 갈멜산(안양) 5월 갈멜산(안양) 6월 갈멜산(안양) 7월 ~ 9월 목동교회(강화) 10월 ~ 13일 갈멜산(안양) 14일 갈멜산(안양) 15일 갈멜산(안양) 16일 갈멜산(안양) 17일 ~ 19일 LA 베냐민(강화)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1월 ~ 10월 LA 베냐민(강화) 11월 ~ 13일 갈멜산(안양) 14일 갈멜산(안양) 15일 갈멜산(안양) 16일 갈멜산(안양) 17일 ~ 19일 LA 베냐민(강화)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4월 ~ 7월 갈멜산(안양) 8월 갈멜산(안양) 9월 갈멜산(안양) 10월 갈멜산(안양) 11월 갈멜산(안양) 12월 갈멜산(안양) 1월 갈멜산(안양) 2월 갈멜산(안양) 3월 갈멜산(안양) 4월 갈멜산(안양) 5월 갈멜산(안양) 6월 갈멜산(안양) 7월 ~ 9월 목동교회(강화) 10월 ~ 13일 갈멜산(안양) 14일 갈멜산(안양) 15일 갈멜산(안양) 16일 갈멜산(안양) 17일 ~ 19일 LA 베냐민(강화)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1월 ~ 8월 LA 베냐민(강화) 9월 ~ 13일 갈멜산(안양) 14일 갈멜산(안양) 15일 갈멜산(안양) 16일 갈멜산(안양) 17일 ~ 19일 LA 베냐민(강화)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5월 ~ 8월 LA 베냐민(강화) 9월 ~ 13일 갈멜산(안양) 14일 갈멜산(안양) 15일 갈멜산(안양) 16일 갈멜산(안양) 17일 ~ 19일 LA 베냐민(강화)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1월 ~ 8월 LA 베냐민(강화) 9월 ~ 13일 갈멜산(안양) 14일 갈멜산(안양) 15일 갈멜산(안양) 16일 갈멜산(안양) 17일 ~ 19일 LA 베냐민(강화)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1월 ~ 9월 갈멜산(안양) 10월 갈멜산(안양) 11월 갈멜산(안양) 12월 갈멜산(안양) 1월 갈멜산(안양) 2월 갈멜산(안양) 3월 갈멜산(안양) 4월 갈멜산(안양) 5월 갈멜산(안양) 6월 갈멜산(안양) 7월 ~ 9월 목동교회(강화) 10월 ~ 13일 갈멜산(안양) 14일 갈멜산(안양) 15일 갈멜산(안양) 16일 갈멜산(안양) 17일 ~ 19일 LA 베냐민(강화) 20일 ~ 23일 LA 베냐민(강화) 24일 ~ 28일 LA 베냐민(강화) 29일 ~ 31일 LA 베냐민(강화)



목회서신

따로 국밥 성도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생전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은 믿음대로,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따로 따로 믿음과 생활을 별개의 생활로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같은 사람을 '따로 국밥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을 내 생활에 순간순간 적용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는 하는데, 그것이 왜 생활에

적용 실천하지 못할까? 이것이 현대교인들의 가장 큰 숙제이며,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따로 국밥 성도'의 신세를 면하고, 믿음을 실생활에 잘 적용,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만, 영적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4:18)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실 수 있다(Can)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하실 것(Will)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노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판단하며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2. 감정과 기분에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은 굴곡과 변동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몹시 기쁘고 흥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 감정이 매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은 항상 변함없이 밝게 떠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구름이 가리우고 안개가 가리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분은 구름이나 안개와 같은 것이므로 참 믿음은 감정과 기분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과 환난이 밀어닥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같이 의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더욱 더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의 실천은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3.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죄 사람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선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암흑시대에 카톨릭이 타락하여 면죄부까지 팔아먹을 때, 1517

년에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개혁의 가장 큰 이슈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以信得義)"(롬1:17)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없지는 것도 아니고,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생활을 적용, 실천할 수 있습니다.



프놈펜 PM사역에 참석한 현지리더들과 강사들 기념촬영

남가주삼성장로교회 제3세계 대상 PM사역

현지 사역자 훈련, 어린이 구제사역 등

남가주삼성장로교회(담임 신원규 목사)는 주님이 세우신 제 3세계(개발대상국) 현지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프리칭 미니스트리(Preaching Ministry, PM)를 시작했다. PM은 미개발대상국 목사, 사모, 교회 리더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복음을 바로 전하고 크리스천 문화

를 정착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그 목적을 둔 사역이다. 첫 번째 PM 사역은 지난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제 2차 사역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08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됐다.

제 2차 사역 강사는 신원규 목사를 중심으로 7명의 강사가 교회론과 예배학, 초대교회사, 성령론, 봉사하는 삶, 심방전도, 가정상담학, 보건학 등 현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강의해 많은 도전을 심어 주었다.

이 교육에 참석했던 현지 사역자들은 "캄보디아는 많은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세워지지만 훈련이 부족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목회자들을 깨우고 질이 향상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해 오기도 했다.

한편 신원규 목사와 안금남 목사는 My Kids World(어린이 구제사역 MKW)사역을 통해 크발코 마을 비전센터에 모인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크발코 홈스테이(고아 51명이 살고 있는 곳)를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을 만나 위로하며 앞으로 새로운 협력과 후원을 도모하고 돌아왔다.

(정리: 이성자 기자)



남가주삼성장로교회는 찬양을 선사하고 있는 남가주한인 합창단원들

남가주한인합창단 제 1회 음악회 열려

배재코랄, 서제나 어린이 등 특별출연

지난 5월 창단된 남가주한인합창단(단장 김정자, 지휘 유의철, 반주 최승호) 첫 음악회가 28일 저녁 7시 일석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죄짐 맡은

우리주', '태산을 넘어' 등 찬양곡으로 막을 올린 음악회는 첫 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참석해 곡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월튼 초등학교 서제나 어린이의 동요와 커헝가 초등학교 합창단의 동요는 듣는 이들의 마음을 동심의 세계로 인도했다.

또한 신하민 씨는 '넬라판타시아', '하나님의 사랑'을 굿고 아름다운 미성으로 감동을 더 했으며 이어 등단한 배재코랄은 '보리밭', '그대 그리고 나'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곡을 선사해 격렬한 박수와 앵콜에 화답하기도 했다.

남가주한인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김정자 단장은 "첫 음악회를 연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특별 출연해준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사를 표했다.

남가주한인합창단은 매주 목요일 7시30분 미주평안교회에서 모이고 있으며 음악에 관심 있는 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것은 (213)500-27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하와이행복한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마치고 담임목사와 임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일"

행복한교회, 창립1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하와이 행복한교회(담임 이남수 목사) 설립 1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이 21일 오후 4시 드려졌다. 교단 관계자 및 축하객들로 자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성대하게 드려진 이

날 예배에서는 특별히 무피헤네만(Mufi Hanemann) 전 호놀룰루 시장이자 현 하와이 주지사 후보가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한 김철훈 목사(하와이 기독교총연합회 회장)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의미 속에는 '수고한 대로 상급 받을 자'란 뜻이 포함돼 있다"며, "교회에서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나라의 확장과 영혼구원을 위해 천국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서의 기쁨진 복으로 마음껏 부여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직식을 통해 △안수집사: 홍순근 △권사: 그레이스리, 김옥경, 유숙희, 유영혜, 제인서, 캐런사와이가 임직을 받았으며 △서리집사로 강인남, 김길용, 명화순, 박종윤, 배주디, 이미순의 임명이 있었다.

이제 대한 답변은 아니다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본다고 해도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쓸모없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못한 인간의 마음에 그러한 경향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나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평소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영혼을 끌어당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그의 능력은 불가항력적(Onweerstaanbaar)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끌어 다니실 때 아무도 반항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카이퍼가 택한 자를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자석의 힘(magnetische Kracht)으로 표현한 것도 재미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다는 뜻이다.

(다음호에 계속)

본사방문

김석원 목사와 최향숙 사모

올랜드 총현장로교회 담임/CCC국제본부 선교사

"주기도문은 내 삶의 축복이다" 출간, 기도 교재로 사용되길...

올랜드 총현장로교회 담임이며 CCC 국제본부 선교사로 글로벌 기도 사역부와 글로벌 국제 기도공동체를 설립한 김석원 목사 최향숙 사모가 18일 오전 본사를 방문해 자신의 사역을 소개했다.

"1992년 '기도의 신학'을 발간하면서 아마 교계 처음으로 기도신학이란 의미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기도의 신학은 주기도문에 근거한 바른 기도신학과 바른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을 위한 기본 정신과 원리를 담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 후 20여 년 동안 부여주시 축복의 간증을 담아 '1달러의 기적플러스'를 출판했고 근간에 두 책을 밑거름으로 해서 '주기도문은 내 삶의 축복이다'를 새롭게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기도의 교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입을 여는 김석원 목사는 자신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축복으로 가득했음을 고백했다. CCC 국제본부 선교사로 올랜드에서 사역을 시작한 김석원 목사는 1992년 기도의 신학을 발간하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기도 신학을 제시했다. 이로서 당시 부흥사로 명성을 떨치던 신성종 목사, 신원규 목사가 김석원 목사에 한국으로 나올 것을 권했다.

이 제의를 받은 김 목사는 1995년까지 사역을 하고 그 뒤에 한국으로 가겠다고 약속하고 올랜드에서의 삶을 이어갔다. 당시 김 목사는 선교센터를 꾸리고 있었다. 그 센터를 통해 2세를 훈련하고 양육하기를 소원했다. 또 그곳에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나 막연한 꿈이었다. 그러던 중 김 목사는 노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노회에서 한

부지를 1불에 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위치를 알아보니 바로 올랜드! 김석원 목사는 단 돈 1불은 건네 주고 거대한 땅을 안았다. 이 땅은 기도의 응답이었다. 땅을 받아든 김 목사는 대지를 밟으며 하염없이 울었다고 한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깊고 크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95년까지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겠노라는 꿈은 한순간에 접어야 했다.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때 김 목사는 '내려놓음'을 실천하고 그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4년 동안 땅을 가꾸고 건물을 짓고 교회 문을 옮기기까지 그의 삶은 한결 한결을 주님이 인도해 가셨다. 이 기간 동안 김목사는 1불의 기적 플러스라고 힘 있게 말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사역을 감당해온 김 목사는 기도신학과 1불의 기적들을 토대로 '주기도문은 내 삶의 축복이다'를 출간하고 이것이 KCCC 기도 공동체 교재로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책은 청년 대학부, 주일학교, 구역예배, 새벽기도 및 개인 및 특별금식기도 중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교재를 다루는 시간이나 기간도 인도자 그룹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구성했다고 김 목사는 말한다.



본사를 방문한 김석원목사 부부

또한 김 목사는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다. 좋은 후임자가 오면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나가 20여년 전 내려놓았던 사역, 기도신학을 위해 다시 한 번 힘차게 달려볼 생각이 라고 귀띔한다.

김석원 목사는 부산 고신대학교 서울 총신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총현교회 부목으로 섬겼다. 1981년 미국으로 유학, 헤리티지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 및 교육학 박사, 루터리아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이후 올랜드 총현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미국 개혁주의(CRC)교단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CCC 국제본부 신학대학원에서 한국부 대표와 교수역임, 현재 CCC 국제본부 선교사로 글로벌기도 사역부에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가 기도할 이유: 기도의 신학", "1달러의 기적", "주기도문은 내 삶의 축복이다"가 있으며 번역서로 "부부위기관리", "전도 위기관리"가 있다.

김석원 목사와 사역에 관한 자세한 것은 www.thegps.kr에서 볼 수 있다.

(이성자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동부교계 기사판



퀸즈중앙장로교회 2대 담임목사 위임예배

퀸즈중앙장로교회 2대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11월 9일(주) 동 교회당에서 열린다. 새 담임 전광성 목사는 한 주 앞서 2일 부임한다.

사역자 청빙

조지아 주 콜럼버스에 위치한 반석장로교회(담임 박성민 목사, PCUSA)가 사역자를 청빙한다. 사역분야는 어린이 및 성인 교육담당 교육목사(전도사)와 행정 및 은사팀들(찬양) 담당 부목사.

담임목사 청빙

메릴랜드 블터모어 외곽 엘리콧시티에 위치한 독립교회인 벨벳교회(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9월29일 시작, 10월6일 정오 마감

뉴욕교협 제41회기 정, 부회장 감사 후보등록 공고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는 지난 24일 광고를 통해 제 41회기 정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제 41회기를 이끌어 나갈 회장과 부회장, 감사를 선출한다.

서 △목사안수 증명서 △여권과 운전면허증 복사본 △교회현황서 △여권용 사진 등이 필요하다. 등록비는 정부회장 입후보자는 2천 달러, 감사는 1천 달러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수님 섬김의 사역을 본받자”

미주한인여성목회협 6회기 첫 정기예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 제 6회기 첫 번째 정기예배가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 뉴저지 푸른하늘교회(담임 이은희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전도협의회 임원들이 '2014 뉴욕연합전도부흥성회' 포스터를 들고 기념 촬영했다.

10월31일-11월2일, 강사 정희량 목사

뉴욕전도협 '2014 뉴욕연합전도부흥성회'

지난 29일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허준목 목사)가 10월말 "2014 뉴욕연합전도부흥성회" 개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회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후원자 초청/모집의 밤 11월 30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지난 25일 9월 월례회를 열고 2014년 후원자의 밤 2주간들을 처리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9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노비 후원의 밤 성황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 후원을 위한 행사 "EnoB BENEFIT Night, Concert+Market"이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저녁 맨해튼 세인트피터스교회에서 열렸다.

Grid of church listings for NY, NJ, and Hawaii regions, including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for various churches like 동부(NY, NJ)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etc.

웅장하고 감미로움... 가을밤 물들어

한인기독합창단 30주년기념 엘리야 대연주회

한인기독합창단(단장 겸 지휘 백경환 목사)이 주최하고 남가주 한인교회음악협회,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 크리스천비전, 크리스천위클리가 후원한 '엘리야 대연주회'가 창단 30주년 기념으로 개최됐다. 28일 저녁 7시 영락교회에서 김경진 목사(나성영락교회 담임)의 지도로 막을 올린 엘리야 대 연주회는 서창으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선사했다. 이어 웅장하고도 감미로운 음률로 가을밤을 물들이며 참석자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인도했다.



엘리야 대 연주회 공연중인 한인기독합창단원들

멘델스존의 엘리야 곡은 헨델의 메시아와 하이든이 천지창조와 함께 3대 오라토리로 손꼽히는 곡이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파트1, 파

트2로 나뉘어 '주여 도우소서' 합창으로 시작돼 '주여 귀를 기우리소서, 너희의 마음을 바치라', '온 마

음으로 주를 찾으면', '주님께서 보시고' 외에 40여곡을 선사하고 김경진 목사(OC 영락교회 담임)의 축도

로 마쳤다. 한인기독합창단은 1984년에 창단(초대 지휘자 박한철 장로)돼 4회 정기연주회를 가진 뒤 잠시 활동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1989년 백경환 목사가 2대 지휘자로 취임한 후 정기연주회와 교회 순회연주회, 특별 연주회를 개설하기도 했다.

이후 백경환 목사의 개인사정으로 사임하고 이종현 선생이 지휘를 맡아 지도하다 2010년 다시 백경환 목사가 4대 지휘자로 취임했다.

한인기독합창단은 현재 54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졌으며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6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돼있다. 본 합창단은 오라토리오, 미사곡 칸타타와 성가곡 등 고전 성가곡을 주 레퍼토리로 하고 있으며 현대 성가와 새로운 창작 성가들을 발굴, 번역해 연주하고 있다.

한인기독합창단 문의처: (213)210-3283.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북가주교역자사모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북가주교역자사모회 창립 20주년 감사예배가 10월 6일(월) 오전 10시 뉴라이프교회(담임 위성교 목사, 4130 Technology Dr Fremont)에서 열린다. 사모회는 북가주 베이지역 교회 목회자부부를 초청한다. ▲문의: (510)657-9191

조이기독백화점 이전

조이기독백화점(대표 박순태 장로)이 지난 9월 18일 올림피아와 유니온(1551 W. Olympic Bl, Los Angeles)으로 이전하고 새롭게 오픈했다. 개점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 Toll-Free 1-800-662-7282. ▲문의: (213)380-8793

어린이전도협회 새소식반 주간강습회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헌 목사)는 10월 6일-27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어린이전도협회 강의실(3130 Wilshire Bl #415)에서 새소식반 강습회를 실시한다. 등록비 20달러. 또한 매주 화요일에는 교역자, 교사, 부모들을 대상으로 같은 장소에서 교사대학 TCE 1단계 강의도 있다. 등록비 170달러. ▲문의: (213)382-1544

다이아몬드 감사한인교회 여성사역집회

다이아몬드감사한인교회(담임 김일권 목사)가 여성을 위한 집회를 갖는다. 10월 22-23일 오후 7시30분에 개최될 여성사역 집회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란 주제로 김정자 사모가 인도하게 된다. ▲문의: (909)279-1919

나성영락교회 한마음 나눔축제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지역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2014 한마음 나눔축제'를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8회를 맞는 본 축제는 한인 기부자들과 교인들의 기부 물건과 먹거리를 판매하며 수익금 전액은 비영리단체와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문의: (323)227-1400

새생명한인교회 사랑의 음악회

아바인에 소재한 새생명한인교회(담임 정철 목사)는 설립 5주년을 맞아 10월 4일(토) 오후 4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한다. ▲문의: (949)341-0022

목회자들을 위한 법률세미나

태평양법률협회(회장 한인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는 목회자 사백비 및 비영리단체 세금공제 혜택 종결에 대한 대책과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교회에 들어올 때 대처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목회자를 위한 법률세미나를 10월 23일(목) 오전 10시 베들레렘교회(1128 S. Crenshaw Bl)에서 개최한다. ▲문의: (714)640-7472

제 7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목사장로 부부찬양단(단장 주재임 목사) 제 7회 정기연주회가 11월 2일(주) 저녁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vd, LA)에서 열린다. ▲문의: (213)219-1187



임선호씨가 기타 클리닉 강의를 하고 있다.



한인가정상담소 창립 31주년 연례기금 모금행사에서 스티브 모리스 한국입양홍보회(MPAK) 회장이 연설하고 있다

임선호 기타클리닉 투어 첫 세미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최선 다해 준비"

'날 향한 계획', '주님은 산 같아서', '주를 위한 이곳에' 등 신앙인들이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찬양을 작곡한 한 임선호 씨가 미주지역 기타클리닉 투어를 시작했다. 마커스의 음악감독이자 일렉트릭 기타 연주자 임선호 씨는 27일 오전 10시 KCCC 소극장에서 예배 찬양을 위한 첫 클리닉 세미나를 열었다.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Peter Park)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참석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예배를 섬기는 마인드를 알기 원하며 찬양팀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마커스 멤버들이 임선호 씨의 강의에 귀를 기울였다.

받은 자임을 인식하고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곡과 편곡, 예배 마인드가 어떠한지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예배자를 위한 기타클리닉을 위해 실제로 기타를 연주해보도록 하며 하나씩 고쳐가는 섬세함도 보여줬다.

임선호 기타클리닉은 같은 날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에서 진행됐으며 10월 4일에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세미나를 갖게 된다. (이성자 기자)

'희망의 나라' 주제 모금 행사

한인가정상담소 창립 31주년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 이하 KFAM)가 창립 31주년 연례기금모금 만찬 행사를 9월 25일 LA다운타운 옴니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기금모금 행사는 '희망의 나라(Wings of Hope)란 주제로 가정폭력, 이혼, 우울증 등 여러 역경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한인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렸다.

이날 카니정 소장은 "이번 행사를 가정폭력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가졌는데 많은 분

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나침 NBC방송국 기자와 폴킴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소프라노 박혜경의 오프닝 공연과 한국입양홍보회(MPAK)의 스티브 모리스 회장이 기금모금 만찬 행사의 스피치로 나서 한인 입양과 위탁가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가정상담소를 통해 치료를 받은 한 여성이 본 상담소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된 내용을 간증했다. (박준호 기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

'마음의 감기, 우울증, 그 회복의 길' 주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가 지난 25일 오전 10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 그 회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

달렸던 송정희 씨와 조성윤 씨가 자신이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강사로 나선 안정영 정신건강국 코디네이터는 "우울증은 미국의 전체 인구 중 3명중 1명꼴로 갖고 있

다. 한인의 60%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자살의 45%가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안 코디네이터는 "우울증 환자의 15%가 자살을 시도하지만, 치료를 받게 되면 10명중 9명이 완전 회복된다. 그러나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 힘들더라도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세미나가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서부(CA) 교회안내</h2>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티미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평일목회(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9: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예배: 오전 11:00	남가주대흥교회 담임목사: 김현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헌신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학교: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경이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서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남가주사망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1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주일 6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동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남가주삼성교회 담임목사: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00(대학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티미예배: 오후 7:30(토)	새신앙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전 11:00 주일 7부예배: 오전 11:00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45 주일예배 5부: 오후 2:00(청년)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7:3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주일학교: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염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티미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기도회: 365일 24시간 온선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금요예배: 오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청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주일 6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www.iranchurch.com Tel. (949)857-3425 / Fax. (949)857-3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www.gracemil.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5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949)854-4010 / E-mail: bet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2014 주요 교단 총회 결산 (1) 교세 위축되는 개신교

장로교와 침례교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 총회가 마무리됐다. 전반적으로 성도 수가 감소하는 등 개신교 교세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경신을 위한 모색은 더욱 치열해졌다. 목회대물림이나 교단선거법 개정, 목회자단체 등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교단별 시각차도 거듭 확인됐다. 주요 교단 정기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

주요 교단들의 교인 수는 줄고 있는 반면 목사·교회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도와 부흥의 열기를 되살리고 목회자 수급 조절을 위한 교계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장합동·통합·고신·합신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장로교 주요 5개 교단이 지난 22~6일 열린 총회에서 보고한 교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들 교단의 재적교인 수는 전년도 15만

소교단의 전체 교인수와 맞먹는 규모다. 예장통합 역시 같은 기간 281만531명에서 280만8912명으로 1619명(0.06%) 줄면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예장고신·합신·기장 등 교단들도 광개는 8000여명에서 적게는 2000여명씩 줄었다.

특히 장년층보다 유치부와 초·중·고 등 교회학교 학생 수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장통합 교단의 유치부원은 지난해 말 5만

교인 수 감소는 고착화되고 있는데 반해 목사와 교회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예장합동·통합, 기장 등 3개 교단은 목사와 교회 수가 각각 평균 2.1%, 1.2% 증가했다. 장로교 양대 교단인 예장합동과 통합에서만 1년 사이에 각각 448명과 615명의 목사가 배출됐다. 이들 교단의 교회 수도 같은 기간 각각 55개와 175개 늘었다.

◇“목회자 수급 조절, 공동 대응해야”=교계 전문가들은 ‘교인 감소’와 ‘목사·교회 증가’ 현상에 대해 “기형적인 성장 구조”라고 진단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정책 발굴과 더불어 목회자 수급 조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영 실천신대학원대 교수는 28일 “과거 한국교회의 성장 기조에 맞춰 만들어진 목회자(신학생) 배출 구조가 시대상황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와 교단의 건강성 제고

주요 교단 교세 현황 (단위명)	
예장합동	
재적교인	299만4873
목사	2만1768
교회	1만1538
예장통합	
재적교인	280만8912
목사	1만6853
교회	8417
기장	
재적교인	29만7752
목사	2856
교회	1639

(자료:각 교단)

기감 '하디 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 "신앙 선배들이 이뤄놓은 한국 선교 역사 되살려야"

23일 충북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규모 성령집회 ‘하디 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에서 기감 목회자들이 공동 축도를 하고 있다. 청주=김민석 선임기자무대가 갑자기 암전되더니 대형 스크린에서 동영상 한 편이 상영됐다. 한국 감리교회의 역사를 되새기며 이 땅에 복음을 전파자는 내용의 영상이었다. 상영이 끝나자 세 번의 타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객석에선 행사 시작을 자축하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23일 오후 2시부터 충북 청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대규모 성령집회 ‘하디 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선교대회)는 이렇게 시작했다. 선교대회 주제는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 전국에서 모인 감리교인 8000여명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집회 내내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다. 자리가 부족해 많은 성도들이 계단이나 바닥에 앉았을 만큼 열기는 뜨거웠다.

행사는 안병수 기감 총부원회 감독의 환영사와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의 개회사로 막을 올렸다. 안 감독은 “우리 모두가 불덩어리가 되어 대한민국 복음화의 불을 지피자”고 외쳤고, 전 감독회장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뤄 놓은 자랑스러운 선교의 역사를 되살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선교대회 공동준비위원장인 김종복(인천 하나교회) 목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의 설교로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고통 받는 이웃을 위로하는 일에 감리교인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김 목사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백성과 함께하겠다는 정치인의 구호, 정부의 장밋빛 정책 등은 ‘위로’가 될 수 없다”며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이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은 바벨탑에서 멀리 있지 않다”며 “하나님은 지금 한국의 감리교회가 일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완(충남 천안 하늘중앙교회) 김병삼(경기도 성남 만나교회) 목사도 차례로 연단에 올라 말씀을 전했다. 감리교회 부흥을 염원하며 대형 십자가에 한반도 지도를 내놓는 순서와 찬양사역자 송정미씨의 특송도 진행했다.

선교대회가 열린 충북은 감리교의 교세가 약한 지역이다. 기감 충북연회 등록 교인은 4만4000여명으로 충청연회(9만9000여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충북연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중부권 선교대회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선교대회를 준비해왔다.

기감은 지난 6월 청주총합운동장에서 6만명 규모로 선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자 일정을 연기하고 규모를 축소했다.

교회·목회자 늘었는데 교인은 줄어 장년층보다 청소년 감소세 두드러져

7987명(평균 감소율 2.2%) 줄었다.

◇중·고생 등 교회학교 학생 감소 심각=국내 최대 교단으로 꼽히는 예장합동 소속 교인은 지난해 말 285만7065명으로 전년도보다 13만7808명(4.8%) 줄었다. 중

8293명으로 전년도보다 3958명(6.8%) 줄었고, 중·고등부는 15만7409명으로 무려 1만4251명(9.1%)이나 감소했다. 예장합동도 장년층 신자 감소율이 0.64%에 불과했지만, 유·초등부(영·유아 포함)는 3.6%, 중·고등부는 4.1%로 감소 폭이 컸다.

를 위해서라도 교계 협업체를 구성하는 등 큰 틀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회자 이중적 허용’ ‘신학도 사역 다각화’ 등의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회학교 학생 감소와 관련, 박상진(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

수는 “낮은 출산율과 과도한 입시 경쟁 등이 교회학교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요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총회 산하에 ‘교회성공운동지원본부(가칭)’를 설치해 유·중·장년 및 노인 등 세대별 맞춤 선교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2) ‘교회 선진화법’의 미래

올해 주요 교단 총회에서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안이 올라왔다. 이른바 교회·교단 선진화법으로 꼽히는 ‘목회대물림 금지’ ‘교단선거법 개정’ ‘목회자 윤리강령 제정’ 등이

안을 통과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2012)나 한국기독교장로회(2013) 등의 관련 제척과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반면 예장합동 총대들은 사실상 목회대물림을 허용하는 결론

결정을 교회의 판단에 맡긴 것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재호 사무처장은 29일 “예장통합에서 목회대물림 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 신학적인 접근뿐 아니라 ‘5리’를 가지하면 10

는 ‘백남선 신임 총회장의 공약사항’이라며 “교회와 목회자, 교회 구성원들 간에 남달리는 법적 소송 문제를 예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 납세 문제도 일부 교단에서 다뤄졌다. 예장합동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가 지난해

최대 이슈 ‘목회대물림·선거법’

대표적인 데, 교단간 입장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표 참조). 일각에서는 “교단마다 신학적 입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더디긴 하지만 한국교회가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목회대물림 금지, ‘3교단 3색’=지난해 교계 안팎에 큰 관심을 불러온 ‘목회대물림 금지법’은 올해 총회에서 최대 이슈였다. 비교적 젊은 목회자는 물론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에게 직결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목회대물림 금지’를 결의한 예장통합은 올해 시행세칙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해당 법

안을 통과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2012)나 한국기독교장로회(2013) 등의 관련 제척과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반면 예장합동 총대들은 사실상 목회대물림을 허용하는 결론

을 내놨다. 대물림금지의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세습’ 용어 사용을 금지하고, 총회 헌법대로 따르기로 한 것이다. ‘담임목사의 자녀가 후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청빙위원회와 공동의회라는 민주적 절차가 있는 만큼 자격이 있다면 후임이 될 수도 있다’는 교단 내 일부 지도급 인사들의 정서가 총대들에게 파고들었다.

예장고신은 지난 1년 동안 관련 법안을 연구한 고려신학대학원교수회가 ‘세습이 아닌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개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사실상 목회대물림에 대한

교단별 입장차 불구 진일보 평가

리를 가지’는 출신수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단선거법 개정·소송 남발 금지 진일보=불법·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교단 선거법 개정의 경우, 예장백석이 앞장섰다. 임후보자의 식사대접이나 성도 동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원천 차단하고, 위반하면 총대 자격을 영구 금지토록 했다. 금지 규정과 더불어 비교적 명확한 처벌 규정까지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은 선거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장합동은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총회 관계자

자발적 납세 참여를 골자로 발표한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문(한장총 발표)’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지만 예장고신은 이 결의문 수용을 1년간 유보키로 했다. 형편이 어려운 개척·미지랑·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교분리와 윤리회복을 위한 한국교회 시국대책위’ 사무총장인 박종연 목사는 “목회자 납세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교계 내 다윈 현안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알리겠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한기총 탈퇴 결의

예장합동이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탈퇴를 결의했다.

예장합동 총대들은 제99회 총회가 열린 광주겨자씨교회에서 한기총 행정보류 관련 ‘한기총을 탈퇴하며 행정보류 이후 회비납부 관련자들은 본회에서 사과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는 정치부 중간보고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백남선 총회장은 “한기총 회비납부 관련자들이 개인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행정보류 상태에서 밀린 회비를 지출했다고 해서 임원회에 맡겨서 쥐고 되겠다고 해서 처리했는데 책임을 묻는다면 어렵다”면서 “성숙한 총회로서 전임자의 예우 문제 차원에서 이 문제는 빼는 게 좋겠다”고 부각했다. 총대들은 이 안건을 기각시키는 듯 했다.

그러나 오정호 정치부장이 나서 “한기총은 이단의 운명이 됐다. 이 안전 중 한기총을 탈퇴한다는 것도 각각되는 것이냐”고 총회장에게 질의했고 다시 탈퇴문제를 논의했다. 일부 총대들은 “한기총 탈퇴문제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는 게 어떻겠

냐”는 제안을 했지만 “임원회에 맡기지 말고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토론에 들어갔다.

탈퇴 결의의 결정타를 제공한 것은 서기행 전 총회장이었다. 서 전 총회장은 “우리가 한기총을 탈퇴하려는 이유는 다락방과 평강제일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교단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했는데 한기총은 아니라고 한다. 이 자리에서 결의를 안 하면 뿌려진 일이 생긴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서기 권재호 목사가 ‘한기총이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총신 신대원 모든 교수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고 이단해제 문제 등이 해소되어 교단과의 관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행정보류하고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했다’는 제98회 총회의 결의사항을 낭독했다. 이어 “지난 1월 임원회에서 한기총이 이단으로 규정된 단계에 대해 해제했기 때문에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기 보고를 받은 총대들은 이견 없이 탈퇴를 결의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p> <p>담임목사: 조승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덴버에담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세환</p> <p>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강화: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com</p>	<p>덴버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형만</p> <p>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글로벌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303) 422-6950, Fax: (303) 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od.org</p>	<p>몽고메리교회</p> <p>담임목사: 최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글로벌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풍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00 주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벨вью교회</p> <p>담임목사: 진용태</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9: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톤장로교회</p> <p>담임목사: 전덕영</p> <p>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글로벌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p>샬롯장로교회</p> <p>담임목사: 나성균</p> <p>주일새벽기도회: 새벽 6:00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글로벌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8-0900 / 0998(렉스점)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앵커리지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영리문교회</p> <p>담임목사: 하태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915)755-1490, 915(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용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글로벌기도회: 오전 6:00 (토)</p> <p>Tel: (215)425-0288, Fax: (215)425-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p>은누리교회</p>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새벽기도회: 오전 11:00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글로벌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p>
<p>새시온침례교회</p> <p>담임목사: 정용교</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은일</p> <p>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seattle.org</p>	<p>주역순교교회</p> <p>담임목사: 배현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토)</p> <p>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큰무리교회</p> <p>담임목사: 나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7:00</p> <p>Tel: (410)920-9049, 347th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osephvision21.org</p>
<p>타코마 삼일교회</p> <p>담임목사: 정태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새벽: 6:00 (토)</p> <p>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p>타코마새생명교회</p> <p>담임목사: 임규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영) 수요예배: 오후 2:00 (월-토)</p> <p>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p> <p>담임목사: 박장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krc.org</p>	<p>템프장로교회</p> <p>담임목사: 윤정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12:10 주일학교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p> <p>담임목사: 조진모</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45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선만</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크리스천 리더십 (4)

- 느헤미야의 리더십(2) 기도하는 리더(느헤미야 1:4-11)

번역 및 요약: 최운용 목사 (감사한인교회)

리더의 중요성

Richard Elworth Day는 그의 책 "성령으로 충만한"에서 말한다. "인간 역사를 볼 때 모든 황금기는 한 사람의 헌신과 의로운 열정으로 시작되었다.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진실한 대중운동은 없다. 단지 그렇게 보일뿐이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이 책에서 9번이나 기도하고 있다. 느헤미야 1장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 중의 하나를 볼 수 있는데, 그의 기도를 보면서 느헤미야의 속마음과 그의 사생활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또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를 배우며 우리의

II. 왜 나는 기도해야 하나?

1.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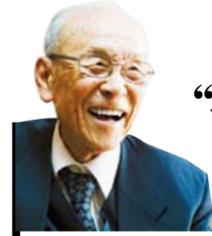
우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당신은 이 일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묻기보다는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리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아는 길은 문제가 올 때 그가 하는 첫 번째 일이 기도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다.

말씀하신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화의 자원을 여는 능력이 있다.

III.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1. 나의 간구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라 (5절)

느헤미야가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함을 인정하라. 느헤미야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시작한다. 응답받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 나는 당신의 성품이 이러하기 때문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과 이 모든 약속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방지일 칼럼 (57) "본대로 들은 대로"

갈등 해소의 길은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이 육에 사는 동안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사회생활에도 갈등이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 부인할 수도 없고 갈등 속에서 싸우면서 산다할 것이다. 나이 들면서 나는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산다. 교회에 붙어살고 있다. 이렇게 내 시간은 이때까지 또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하루 하루 살면서 감각의 시간도 있으며 마음 아픈 시간도 있어 내 스스로도 갈등이 나를 괴롭힘도 있었음을 또 있음을 자인한다.

객관적으로 교회 직원간의 갈등, 교인간의 갈등, 교역자 교회간의 갈등의 일로 그 해소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데 시간을 써보기도 하고 머리로 짜내보기도 하였다. 해소의 길을 찾아보기도. 갈등을 해소했음을 감격해보기도, 감사하기도, 해소가 기여하 안됨으로 마음 더 아파지는 일도 많았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거나와 갈등을 해소해 보려는 데서 그 갈등의 원인부터 분석해보기도 했다. 목사들과 교인들의 갈등의 유래도 많거나와 좋은 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서이다.

새로 믿는 자는 목사에게 거의 순종한다. 그러나 여기에 갈등이 생긴다. 다 선의에서임이 깊어 이해되면 갈등도 안 생기나 목사는 장로 집사들이 목사의 권위를 무시한다, 도전한다, 관여한다 등 불쾌감을 가졌다가 단상에서 어떤 때는 그만 이런 면이 노출된다. 갖 믿은 사람은 순종하는데, 오래 믿은 이는 교만해서 목사에게 간섭한다. 그 발언이 무슨 정서를 자극하려는 의도는 없어도, 실상 그러한 면을 당하게 되어 그렇게 토로하기 쉽다. 신앙의 근거가 있다는, 교회의 경력이 누적된 이는 선의로 목사님께 전달했다니 단에서 보복인가, 갈등이 뒤를 많이 들었다. 또 보았다.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초신자는 좀 열이 있는데 오랜 사람은 열심이 초신자만 못하다. 이런 실정도 단에서 토로되면 겉껍이 갈등이 쌓이기도 함을 듣고 본다. 심지어는 목사의 교회행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한다. 나와 동조하는 사람만으로 족하다. 내가 지내보는 바로는 초신자가 열심도 있다. 목사에게 순종도 한다. 그런 목사 자신의 편이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그 초신자도 시간이 가서 구신자가 되면 그의 교회경험도 쌓인지라 자기 의견이 토로되는 일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신앙의 집안에서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믿는 이가 열심도 없는 듯해도 꾸준함도 목사는 알아주어야 한다. 양은냄비는 쉽게 끓고 쉬 식는다. 두터운 구들(은들)은 오래 있어야 비로소 더워지나 빨리 식지 않는 법이다. 어떤 때는 교인들이 목사에게 화끈한 부흥회를 해서 열을 좀 불어 주세요 요청도 때로 나도 들었다. 나는 목사로서 내 노선이 정해진지라 그런데는 응답못한다. 화끈한 양은냄비가 돼서는 안된다고 타이르기도 했다. 심지어 우리 목사는 좀 화끈했으면 하기도 한다. 그러나 꾸준함만 못하다. 나는 학생시절에 새벽기도시간은 놓치지 않았다(내 단독으로). 이를 가까운 친구는 껍이나 비웃었다. 가서 앞다야 하느냐, 그런 시간은 낭비라고 막 공격까지 하였다. 그런 친구가 임원 중 은혜를 받고서 병원의 환자복을 자기 마음대로 벗어버리고 모란봉으로 나가서 솔나무와 씨름하면서 솔나무를 뽑기까지 하는 야곱의 씨름을 했다. 화끈해졌다. 그 열의 고도는 대단했다. 사방에 간증도 하고 야단이었다. 차차 정상궤도로 돌아오음을 보았다.

목사도 자기 귀에 좀 거슬린다오 오랜 신앙인의 말을 역겹게 듣지 말고 큰 그릇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초신자를 소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목사를 지지하고 자기 살이라도 배어 대접할 듯 하다가 그도 세월이 가고 좀 연륜이 지나더니 목사배척의 열이 옹호한 때와 정비례함을 본 것이다. 목사는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화끈하게 부흥회 하자는 교인에게는 천천히 오랫동안 불을 때보자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 갈등의 해소는 지도자 측에서 크게 융합으로 해소해야 함을 나는 지내며 보았다. 목사 장로간의 갈등도 처음 시작에는 선의를 잘못 이해하여 생기가 심화해짐을 본다. 이렇듯게 포용력을 가지고 해소되게 해야 함을 느끼곤 하였다.

(1997년, 4권)

언제, 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에서 리더십 출발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찬양, 죄고백, 약속다짐, 구체적으로

기도도 응답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느헤미야 리더십의 출발점은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이기 때문이다.

I. 언제 기도해야 하나

느헤미야가 사람들 통해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다고 말을 들었을 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울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었다. 4절에서 그는 "며칠을 기도했다"고 한다. 보통 리더는 기도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진짜 리더는 기도를 우선순위로 하지만 실패자는 기도를 마지막 후속처로 여긴다. 그것이 리더와 실패자의 차이점이다. 느헤미야는 사실 매우 활동성 있는 사람이었다. 조직을 만들고 동기를 부여하고, 관리자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것이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2. 기도는 나의 짐을 가볍게 해준다

"느헤미야"란 이름의 의미는 "주님은 나의 위로"라는 의미이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로 마음이 상했을 때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갔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 리더는 주님께 그들의 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오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누구든 리더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위대한 리더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들의 힘을 얻는다.

3.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

믿음의 기도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 없다. 예레미야 33: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라고

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여 기도를 드리라.

2. 내 삶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라 (6절)

느헤미야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몇 번이나 "나"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는지 보라. 그는, "나는 고백합니다...나 자신도...나의 아버지의 집이...우리는 사약하게 행동했습니다...우리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니었다. 심지어 이 일이 70년 전에 일어났을 때 그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국가적인 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진정한 죄의 고백은 개인적인 죄와 공동체적인 죄를 다 자신의 것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한다 (8-9절)

느헤미야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적이었다.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한다. 만일 당신이 피상적인 기도를 드린다면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리더십 포인트: 리더십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사적인 생활, 바로 기도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기도 생활을 개발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배우라.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배우라.

또 한 가지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4개월에 걸쳐 기도를 하면서 그의 기도가 발전하여 기도의 내용이 점점 더 명확해졌을 것이다. 종종 하나님께서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지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간에 걸쳐 우리의 기도를 명료하게 만들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리더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기도의 목표를 분명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2015. 2.16~2.26 -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 9 - 터키, 그리스, 로마,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동독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물문교는 과연 기독교인가?

물문교에 대해 신앙의 혼돈이 생기신분
물문교에 관해 알고원하시는 분

상담 및 소그룹 클래스, 세미나

문의 정 일 국 목사

- 전 화: 714-833-2345
- 이메일: miranjung7@gmail.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선교 편지

나의 사랑, 파푸아 뉴기니 남태평양 산호섬(상)

1. 들어가면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의 사계절을 잊고 지낸지 오랜 시간이 흘러갔다. 요즘은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변화가 있긴 하지만, 9월 10월하면 떠올리게 되는 무더위를 보내고 열매를 거두는 가을의 길목에서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우기가 곧 시작될것구나. 이제 곧 바람이 불고, 10월말 경부터는 서서히 우기에 접어들어 장마비가 매일 매일 쏟아지는 때가 온다. 그러면 지금은 비가 오는 시기구나. 크성을 부리는 모기때와의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4월 중순부터 서서히 건기가 시작되면, 어떤 해는 거의 6-7개월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기도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파푸아뉴기니, 남태평양 섬나라. 특히 우리부족이 있는 중부지역에는 이 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뿐 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건조한 지역에 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물을 아껴야 한다! 설거지 행구는 물도, 목욕물도, 심지어는 머릿도 짧게 자른다. 마을생활에 몸과 마음이 젖어 있어 건기가 다가오면 이렇게 하게 된다.

1988년 10월, 우리 부부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와이마 부족마을에 들어가서 언어습득을 하고, 에레레라는 마을 생활을 시작하였

다. 그때 부족사람들이 우리가족에게 제공한 것은 잘 지어진 연합교회 목사님 사택의 손님 방 한 칸. 그러면서 물었다. “와이마 부족어려운 건 뭐가 있니? 1년이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저 말문을 잃고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랬다!

1년, 2년, 3년이 되어서야 겨우 세 살 밖에 아이들처럼 이들의 말을 배워야 할 수 있었고, 1995년이 되어서야 마가복음 쪽복음을 출판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6년, Pou Namona Ituna 즉, 복음의 집,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집을 짓기 시작했다. 거의 1년이 걸렸다. 그러나 와이마 부족 사람들이 의해서 지어진 집이었다. 그리고 그 집 방 한칸이 우리 아이들의 마을 학교였는데 아이들을 본부에 있는 기숙사로 떠나보내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학교를 변경해서 우리 한 칸 방으로 만들어서 지내기 시작했다.

2003년 7월19일, 15년의 세월을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와이마 부족의 교회는 와이마 언어로 된 Ábi'uai Apauana Mahamahana 즉, '새로운 큰 약속'이라는 신약성경을 봉헌했다.

그 이후, 이들의 말로 말씀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이마 부족의 교회를 점

점 튼튼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해마다 눈으로 가슴으로 보고 있는 축복을 우리부부는 누리고 있다.

2005년 5월, 와이마 교회는 우리 부부와 그리고 와이마 부족의 사역자들을 이웃 부족인 Nara(나라부족), Gabadi(가바디부족), Doura(도우라부족)를 위해 보내 주었다. 와이마 부족형제들은 나라와 가바디 부족 형제들의 훈련 기간에 멘토로, 그리고 우리부부가 이 부족들을 오고 가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 동행해주었고, 그 이후 계속해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사역을 하고 있다.

와이마교회는 인근 부족들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구약번역을 자기들끼리, 와이마교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동역을 시작하였다. 우리의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을 하고, 소망을 함께 할 수 있었고, 1995년이 되어서야 마가복음 쪽복음을 출판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6년, Pou Namona Ituna 즉, 복음의 집,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는 집을 짓기 시작했다. 거의 1년이 걸렸다. 그러나 와이마 부족 사람들이 의해서 지어진 집이었다. 그리고 그 집 방 한칸이 우리 아이들의 마을 학교였는데 아이들을 본부에 있는 기숙사로 떠나보내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학교를 변경해서 우리 한 칸 방으로 만들어서 지내기 시작했다.

역사하고, 이들을 각 지역교회의 지도자들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

2.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작지 않다.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한국 본부에서 동원훈련부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이곳 파푸아뉴기니로 돌아온 우리부부, 다시 재직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물론 주님께 다시 한번 왜 우리를 다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여쭙어보는 시간이 병행되었다. 결코 쉽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



가이루부족 형제들과 함께 기념촬영

그런데 작년 5월, 이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주어졌는데 동남부지역의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었다. Central Province(중부지역: 우리부부가 1988년부터 일해 온 지역), Oro Province(오로 지역: 중부지역과 연결된 산지와 바닷가 지역), Milne Bay Province(남부 지역: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끝자락)로 현재 113개의 언어 종족으로 구성되어있고, 우리부부가 소속된 SIL(Wycliffe성경번역교회), 그리고 이 나라 현지인 성경번역단체인 BTA(Bible Translation Association), 또한

파푸아뉴기니 성경교회(Bible Society of PNG)도 성경번역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번역팀중 우리가 소속 된 SIL만해도 30여 종족, 거기에 다중언어사역을 포함하면 40여개 언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을 총괄해서 섬기는 사역이다.

필자부부가 25년이 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와이마' 한 종족, 그리고 그 이웃의 '나라', '가바디' 종족을 주님께 불러오는 사역만 해도 벅찬 일인데 어찌 이 사역을 감당 할 수 있을까? 기도, 다시 기도, 거듭해서 주님께 여쭙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순종했다. 선교는 순종과 헌신이라고 늘 외치고 있는 남편, 그리고 거기에 100% 동참하는 자신을 거부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다. 그리고 결코 작

지 않다!”

주일아침에 비가 오면 예배당밖에 풀이 차오르니 주일아침이면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을 수 없고, 다시 오후에 해가 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웃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을 한다. 기독교국가라는 이름아래 세계의 다양한 선교단체와 교회교단들이 이곳의 수도뿐 아니라 정글 깊숙이 들어와 있다. 800여 종족의 다른 언어집단, 소종족들 가운데 다 수백개의 다른 교회의 모습이 이들을 더 분열시키는 것은 아닌 가 싶을 때가 많다.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사역이 최고인 것처럼 사역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본다. 아니 성경번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나를 포함한 우리 선교단체의 모습이 다른 사역자들, 특별히 이 나라 현지인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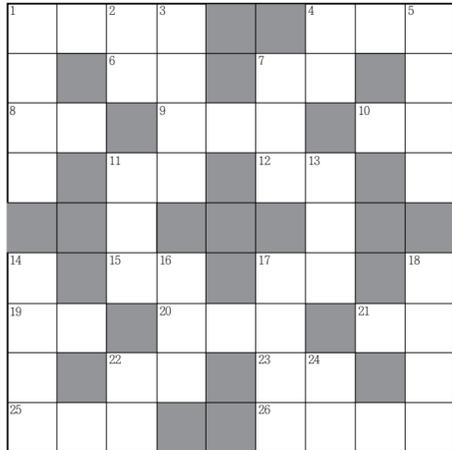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파푸아뉴기니의 교회와 함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들과 나눌 수 있을까?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말씀을 자신들로 말로 번역하는 일을 자신들이 감당하고, 나아가서 세계선교에 동참해 되는, 아니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사실 이 기도제목은 처음 우리 부부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져왔던 것이다. 최선을 다 해온 목표이자 우리 마음이였다. 그리고 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지역대표의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부족한 우리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되었다.

우리부부가 한국에서 본부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 세 부족의 사역자들은 연합하여 자기들끼리 사역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지금도 가끔 그때의 즐거웠던 순간들을 나누다. 2009년, 이 나라 연합교회 본부에 찾아가서 교회지도자들을 위한 문해사역 워크숍을 할 수 있다고 등록해놓고, 사역자분들을 위한 문해사역에 초대받아 한 주씩, 그 다음 해는 두 주, 자기들이 사역하고 있는 부족이 아닌 남부지역에 가서, 세 부족의 형제들이 지혜를 모아 준비해서 함께 사역을 진행하며 하나되는 일을 해나갔다.

(계속)

십자말 • Cross Word (53)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품인지 생시인지...(행10:10).
4. 그 지방이나 땅에서 특유하게 나는 물건(시78:46).
6. 기독교의 원리를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7. 아계의 아들인데 잠업30장을 기록한 사람(잠30:1).
8. 국왕의 파송을 받아 그 지방의 정치적 세력을 약화한 사람(단3:2).
9. 하나님의 계시로 장차 일을 미리 알고 백성들을 선도하는 사람(삼상9:9).
10. 압박이나 가두었던 것을 풀어 놓음. 팔일○○(레19:20).
11. 영원무궁한 생명(창3:22).
12. 심상치 않음(사28:21).
15. 독침이 있는 곤충. “알을 달라하면 ○○을 주겠느냐”(눅11:12).
17.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출29:18).
19. 아주 가늘고 작음(출16:14).
20. 빛장으로 쓰는 나무토막(레26:13).
21. 무슨 뜻을 나타내는 표(창13:9).
22. 남의 말이나 의견을 뒤집어 거스름(스10:15).
23. 여러 가지 기구(삼상8:12).

25. 적, 녹, 흑갈색을 띠고 우리와 같은 광택을 가진 보석(출28:18).
26. 물러나게 만들다(왕하4:27).

<세로 푸는 열쇠>

1. 명주실로 짠 피륙으로 만든 깔고 앉는 자리(삼3:12).
2. 재앙을 내린다는 요사스런 귀신(삼상15:23).
3. 어린 아이나 가르칠 만한 선생(잠3:24).
4. 흠을 파낸 큰 구덩이(히11:38).
5. 바퀴를 물의 힘으로 돌려 곡식을 찧는 기구. 수차(水車).
7. 아저씨(레10:4).
11. 영원 전(렘16:25).
13. 제단에서 계속적으로 제물을 태우는 제사(민28:3).
14. 찬송가188장.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16. 하나님이 남자의 이것으로 여자를 만드셨다(창2:21).
17. 하나님과 사람간의 친교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때 사용한 불품(민6:14).
18. 브나야의 부친(삼하8:18).
22. 넓고 편편한 큰 돌(창49:24).
24. 붉은 윤이 나는 쇠붙이. 전기가 잘 통해서 전선으로 많이 씀(겔1:7).

십자말 정답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당로 870-10-5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가락로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8491~5, Fax. (062)522-4834 500-170 경교광역시 북구 관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인동 1670-1	
로마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09-06-843-3676(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2: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처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2:30 주일5부: 오후 7: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인동 13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www.seongsil.or.kr Tel. (82)2-998-0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8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팩스(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신사동 137번지	시은사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9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가락동 1721 291(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십자가기도회: 오후 8: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30 십자가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8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대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70)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오늘날의 한인가정들의 문제는 크게 부부문제, 자녀문제, 세대간문제, 그리고 기타문제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오늘은 우선 부부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문제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 때는 사실 개별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든 인간 사회의 문제들이 그러하듯이, 가정에서도 어느 한 영역의 문제가 다른 문제들을 야기 시키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얽히고설키기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문제라는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불화, 외도, 이혼, 그리고 폭력(성폭력) 등 또한 어느 한가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 열거한 모든 예들이 한꺼번에 일

인식되지 않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으며, 또한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력은 그 심각성이 극을 향해 치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한인 사회 및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문제가 독립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최근 들어 부부 문제가 심화 확산되어온 것을 염두에 두면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앞에 언급한 부부문제 중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요즘 많이 회자되는 담론이 있습니다. "이혼은 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깨어진 관계 안에서 서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어찌하면 더 잘못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한 채 스스로도 남도 속여가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한인 교회들은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오늘날의 대지인 "한인교회의 미래적 과제들 중 하나는 교육대상자들인 한인 지체들의 여러 가지 가정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개입해야 한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가정문제에는 "이혼"의 문제도 포함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혼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지한다는 것은 한인 지체들 안에 그리고 교회내외 성도들 안에 이혼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이라는 문제

교인 이혼도 급증...교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 권면...편견 정죄 없는 교회안 분위기 조성

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외도를 하여 불화가 깊어져 이혼을 하거나, 불화가 폭력으로 이어져 이혼을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크고 작은 가정문제들은 사실 가정이라는 사회단위가 생긴 이래로 단 한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을 것이며, 부부 문제들 또한 늘 있어왔던 일일 것입니다. 물론 가장적인 이념과 사회적 통제아래 수면 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부 문제들이,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에 대한 강조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으며, 이에 더 많이 이슈가 되고 또 더 많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자유로운 다양한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또한 빠른 산업화로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일정한 가치체계에 대해 소홀해지면서, 최근 들어 부부 문제들이 심화 확산된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배우자 외도의 빈도는 물론이거니와 이혼률이 급증하였고, 이것이 더 이상 심각한 수준의 부부문제

요즘 미국사회 및 한인사회의 계속되는 경제적 침체와 그로 인한 가정경제의 위기 및 파탄으로 참정성과 평정심을 잃고 좌절감과 억울함이 가득하여, 사소한 일에서도 분노조절에 실패하면서 제어할 수 있는 소소한 이슈들까지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극심한 다름이 일상화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이 깨어져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당사자들의 죄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인들은 이혼에 대해 경계하는 교회들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또한 약간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탓에 실상 암묵적으로는 이혼을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교회들 안에 많이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도 죄책감 실패감 등을 안고, 이혼 후 아예 교회를 떠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며 사이좋아 보였지만 알고 보니 쇼윈도 부부였던 어떤 커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혼 후 각자 타주로 갔고, 본인들이 이혼한 사실을 이주해간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의 아예 교회를 등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 한켠에 상처를 간

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결혼관, 결혼의 의미 등에 대한 교육을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예방적 차원과, 이혼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죄책감, 실패감, 그리고 좌절감을 극복하도록 목회적 돌봄을 주는 사후 관리적 차원을 포괄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어떤 일을 겪었던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 이혼 시, 이혼 이후 남성보다 보다 더 취약하므로 더 더욱 특별한 보살핌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지체들을 기반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며,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혼을 경험한 지체들에게 말조심을 하고, 상처주지 않고, 그 일로 공격의 무기로 삼지 말고, 편견을 없애고, 정죄하지 말도록 모든 성도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주께서 하셨나이다(시18:35)

다윗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또한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승리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가 돼주시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35절 "주께서... 주의 오른손이... 주의 은유함이"라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시편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이 있어도 방어를 잘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공격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면 서도 주의 은혜로 이겼다는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화 주의 은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시18:35-36)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이유는 항상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의 은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아름다운 신앙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하시고 훌륭하게 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선을 베푸시고 모든 섭리를 다 동원하시고 끝까지 낮추셔서 나를 높

이신 주님... 오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은유하심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실족치 않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36절 "넓게 하셨다"는 뜻은 거역지킴 쫓기지 않고 기쁨과 자유함속에서 안전함을 누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수 나로 실족치 않게 하셨나이다(시18:36-41)

다윗은 수많은 위험 순간 속에서도 오히려 더 여유있게 낙담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심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견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실족치 않게 하셨다"는 뜻도 "발뼀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으로서 더욱 견고하게 됐다 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만나는 데도 오히려 더 여유있고 더 견고하게 되는 성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이 넘치는지요!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형태의 죄와 악은 도망갑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와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수들을 밭 아래로 앞드러지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원수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목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어(시18:42-50)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십니다. 이방사람들까지 소문을 듣고 즉시로 순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나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는데도 내 소문을 듣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인데도 항복하며 나오니다. 오직 기도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심는 성도에게는 얼마나 신비한 은혜가 넘칩니다. 나는 그저 주님만 의지했는데 주님께서 모두 승리케 하

시고 싸우지 않아도 항복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쳐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방인들까지 자원해 굴복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함께 함하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여 이르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어 영영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시19:1-2)

시19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과 성경이라는 두 가지의 책을 쓰셨으며 그 두 가지의 위대한 책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떼를 돌보면서 이 두 가지의 위대한 책인 자연과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는 이 두가지 책에 흠뻑 빠져서 이 책들을 지으신 저자를 최고로 높이며 이 두 가지 책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1. 2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고백합니다. 주목할 것은 자연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19:1-2)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은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그 하늘에 수천수만 가지 형태의 구름과 바람과 폭풍이 있는 하늘이 있고 밝은 태양의 하늘이 있고 밤에 여기저기 빛나는 별의 하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늘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별을 보고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보고 끝이 없는 우주 지

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봅니다. 이 지구가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만유인력의 힘과 온 우주가 질서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자연을 통해 순간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년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 료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1/8	7.7cm × 5.8cm			
	7.7cm ×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② 교회(기관)주소	_____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_____ 영문 : _____
	⑤ 사택주소	_____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_____ Fax.() _____
	⑦ E-mail Add.	_____
	⑧ Web Add.	_____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_____

* 위키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신앙의 본질회복을 통한 미래목회 제언(3)

-에배가 무너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다



전 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VI. 새벽예배의 회복

새벽예배가 회복되어 교회의 모든 사역과 헌신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영혼의 호흡의 특징은 쉬지 않는 한결같은 것이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한결같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루에 세 번이 왜 한결같은 아름다움인가? 하루 세 번의 고정적인 시간은 의식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있는 노력이

일한 소스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국교회의 현실을 뛰어넘는 주님의 삶의 내용을 찾게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 신앙의 표준이 미국교회라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교회의 동성애 합법화 등의 문제도 따라야 하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목회의 열매가 풍성한 어느 목사님에게 겸손히 그 비결을 물어보았을 때, 그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바가,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30

수 있는 것은 목회의 가장 큰 축복과 목사에게 목회의 역량을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를 꼽아야 한다면, 아마 새벽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새벽기도의 회복은 교회와 목회가 새로워지는 여명을 밝히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

VII. 본문중심의 연역적 말씀의 회복

말씀연구에 대한 연역적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대상들을 보면, 전혀 예수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모태신앙과 부분적으로 신학을 했던 이들이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있다. 돌아보면, 일부 순종치 못하는 삶의 지식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가 초대교회 이후로 있어왔다. 그러나 그러한 온전치 못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은혜의 방편은 다시 또 다시 말씀에서 시작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며 말씀 안에서 회복을 보는 것이다. 지나보면, 교회를 어느 정도 문제 앞에서 불

새벽기도의 회복은 교회와 목회가 새롭게 여명 밝히는 첫 단추 설교/성경공부는 연역적 접근으로 더욱 성숙한 순종의 삶 지향 1대1 노방전도로 하나님 은혜 바라보는 순종의 자세 회복해야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인교회에 허락하신 고정적인 기도시간의 축복이 '새벽기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분은 새벽기도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자다가 깨면 오겠다고 한다. 평생 나오기가 쉽지 않는 분일 것이다. 새벽기도는 가장 고정적인 시간에 영혼의 호흡이 가능한 축복의 시간이다. 이 시간은 전날 밤부터 의식하고/긴장하고/노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우리에게 복음전해 준 미국교회에는 새벽기도회가 없는데, 왜 미국까지 와서 평양 김선주 목사가 시작한 새벽기도회를 해야 하느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 잘못된 신앙상식이다. 미국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주님이 '습관적으로 새벽미명에 기도하려 가진 것'을 보면,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시 때에 의식적으로 고정적인 시간에 기도하기를 애쓰셨음을 알게 한다.

물론, 그가 아침 일찍 기도하려 가진 것에 대해서는 두 곳에서(막 1:35/눅4:42) 언급하셨지만, 이 두 번의 기록을 근거로 예수님이 3년 동안 딱 두 번만 새벽 기도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365일 주님의 일기책이 아니라는 것과 마가복음 1장이 주님의 하루일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유

년 동안 새벽무릎을 꿇으셨다고 답하는 것이다. 이민교회도, 새벽을 깨우며 고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을 본다. 비록 이른비의 축복이 없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릎 꿇을 때에 반드시 늦은 비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어야 한다.

필자는 중직자들을 세울 때 미리 광고를 한다. 경우에 따라 의아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하게 '투표는 여러분이 하시지만, 새벽기도 하지 않는 중직자 후보에게는 제가 안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한다. 새벽기도가 왜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들의 영적회복을 위해 중요한가?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해서 말씀전하는 목회자와 세움 받는 리더의 마음과 생각이, 한 말씀 안에서 매일 매일 적용되어간다고 할 때, 은혜의 방편이 되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됨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새벽기도로 말씀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연약함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예배자로, 충성꾼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떤 목사님은 '새벽기도를 누가 만들었나?'라고 하면서 새벽마다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도 분명하게 고백할

들고 기도하며 세우는 이들은 한 말씀 안에서 배우고 가르쳤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말씀을 함께 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함께 그 말씀의 길을 보는 것만큼 진리의 성령이 강하게 우리를 묶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경공부와 설교말씀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하는 '연역적인 방법론'을 권고하고 싶다. QT식의 귀납법적 성경공부도 유용한 면이 많지만, 말씀의 본질을 상황해석화 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선포된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 연역적인 접근으로 더욱 성숙한 순종의 삶을 지향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말씀의 연역적인 접근과 선포는 믿음과 순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만, 귀납적 접근은 믿음과 순종 사이에 이성의 이해와 설득이라는 단계를 더 거치게 된다. 하나님말씀의 근본은 믿어 순종케 되는 철저히 영적인 단계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아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지식은 결코 참된 앎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계속)

인/터/뷰

지니정 변호사

“하나님 뺄 밖에 없는데...” 역경 속에서 만난 신앙

한인들이 삶속에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함께 뛰고 있는 지니정 변호사가 21일 오후 1시 남가주 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에서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요즘 대두되고 있는 오바마 이민법 행정명령에 대한 설명과 그 외 모든 법적 문제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일대일 면담도 갖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했다.

세미나와 면담을 마친 지니정 변호사는 기자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과 신앙스토리를 들려주었다.



자신의 일은 곧 사역이라고 말하는 지니정 변호사

“제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홀로된 어머니는 저와 오빠를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 하셨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남매의 손을 잡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미국으로 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며 잠시 침묵했다. 아버지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지니정 변호사 남매를 그의 어머니는 홀로 믿음 안에서 키워 아들은 주의 종(홀로톤 장로교회 임동운 목사/장년부 담당)으로 세웠고 변호사가 된 딸은 이 사역을 사명처럼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녀가 이렇듯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은 어려움을 통해서라고 고백한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법

감동으로 찾아 있는 듯하다. 지니정 변호사는 심리학을 전공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마땅

꾸미고 제출할 때 기도로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운 케이스도 있지요. 그럴 땐 서류를 준비해 놓고도 며칠씩 제출하지 못하고 기도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맘에 평안이었을 때 서류를 접수하기도 하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스넥을 줄 때도 성경구절을 암송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느 한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과 가까워야 가능한 일기에 아이들에게도 훈련이 되도록 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지니정 변호사. 그에게 있어서 ‘삶은 전도이고 선교’라고 말한다.

훈탁해진 미국의 동성애 문제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함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만연하는 낙태문제나 동성애 문제를 위해 지금이라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진정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결국 그는 모든 주어진 삶속에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을 이뤄갈 때 아

목사이들과 변호사 딸로 키워낸 홀어머니의 신앙 본받아 삶속에서 전도하며 선교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나라 확장

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일을 시작하면서입니다. 처음 변호사 일을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일하다 집으로 돌아가며 눈물을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아빠도 없이 자랐는데 이제 하나님 뺄 밖에 없는데'라고 울었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지니정 변호사는 12살 때부터 일을 했다고 한다. 청소, 커피숍 등 이곳저곳 아르바이트 일거리를 찾아가며 하루도 일을 쉬지 않았다. 공부와 일은 쉴 수 없는 관계처럼 지니정의 인생에 파고들어 숨가쁘게 달려야했다. 역경 끝에 변호사가 되고 로펌에 취직을 했을 때, 처음 자신의 이름이 있는 책상과 방, 까만 가죽 의자에 앉았을 때의 기쁨은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은 아직도 그날의

히 가야할 길을 찾지 못해 다시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지만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다. 자신의 삶속에 아픔이 많았기에 아픔을 안고 자신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일이 자신의 일처럼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한다.

이제 두 자녀의 엄마로 40대 중반으로 접어들었는데도 새로운 꿈과 계획이 있지만 그녀는 잘 알고 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 계획조차 내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다고 한다. 뒤돌아보면 지금의 나 됨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기에 하루하루 사무실을 찾는 고객들의 삶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며 그들의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고민하며 달려간다. “저는 늘 어떤 문제의 서류를

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지론이다.

지니정 변호사는 앞으로 남가주 든든한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와서 궁금하고 답답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미나와 면담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언제든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남가주 든든한교회에서 실시하는 지니정 법률세미나 일정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지니정 변호사는 UCLA 심리학 학사, 샌디에고대학교 법학박사를 취득하고 F.B.I와 한국 Kim & Jang Low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최고의 성공률을 모토로 지니정 변호사 그룹을 이끌고 있다. 오피스는 LA(3600 Wilshire Bl. #1416)와 LA 동부(19811 E. Colima Rd. #610) 두 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문의전화는 (213)427-9750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풀러신학대학원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정 능력을 잃은 한국교회"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른 한국교회를 위한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대안들이 가능할까요? 많은 이론과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 목회자가 철저히 낮아지며 변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한국교회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풀러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은 그런 고민을 담아, 1995년부터 목회자들을 위한 재교육의 현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학위를 위한 자리가 아닌, 현장목회 가운데 바른 신학적 분별력, 섬김의 리더십, 목회적 역량을 균형 있게 겸비한 목회자로 재무장하며 재현신 할 수 있도록 돕는 한인 목회학 박사과정은 1)성경연구와 설교, 2)목회상담과 돌봄, 3)신학과 목회와 문화, 이 세 집중분야에서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코스웍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신학이 만나는 이러한 귀한 학습의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인목회학박사과정의 학습목표	학위과정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회사역을 위한 성경/신학적 기틀 재확립과 소명의 재확인 ·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기독교 가치/원리에 부합한 대안모색 · 목회상황 분석능력배양과 다양한 사역에서의 목회기술개발 · 가정/교회/사회에서의 건강한 대인관계 개발 ·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효과적인 리더십 및 영성/도덕성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의 집중분야를 중심으로 · 코스웍 : 40학점 · 논문 : 8학점 · Tuition : 학점당 \$400 · 재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 · 타주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여행보조금 지급

